



농어장선

10

주제 103 (2014)
루게 제 302호 월간

내 심장의 목소리

작사 리혜정
작곡 림금성

사랑을 담아 뜨겁게 (♩=72)

G Em C A D

1. 가슴에 품은 모든생각을 - 어머니께 - 아릅니 다

G D Em C G D G

꾸밈도없이 가식도없이 - 진 - 정을 - 터칩니 다

G D B Em C A7 3 D

그 러면 정 깊은어머니 그윽 하 신그 - 눈 길 로 기뻐

G B7 Em C A7 D G

던 마음도 - 아팠 던 상처도 - 따 - 뜻 이해아릅니 다

2. 사랑 아니면 들수 없었던 아픈 때도 들어가며
못난 자식도 정을 다하여 키워주신 어머니
주저없이 스스럼없이 그 품속에 안겨들며
숨겼던 잘못도 서슴던 허물도 그대로 터놓습니다

3. 그 품에 자란 천만아들딸 한마음 우러르며
생을 주시고 빛내여주신 어머니를 따릅니다
사심없이 변함이 없이 그대만을 사랑할 마음
어머니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 영원히 안기립니다

당이여 당이여 어머니당이여 영원히 받들립니다

차 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이는 길에서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어	3
선조들이 창조한것을 잊지 않도록	7
유적유물을 찾는 사람들	8
변함없는 귀중한 재보로	10
우치선의 자녀들	1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중에서

차광수가 찾은 길	14
조선로동당의 뿌리	16

수필

영원한 총비서	17
-------------------	----

수기

태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18
열과 정을 더해주시며	20

방문기

보금자리의 주인들	21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속에서	24

단상

고향집의 독	25
로선속도향로로 들끓는 세로리구	26

무승의 꿈을 만고 30

신동들을 키우는 교육자들 32

조국의 품에 안겨
진정을 바쳐 34

고향소식
더욱 유명해지는 고장 36



편 지

고향은 멀리 있어도 38

수 기

젊어지는 보약 39

장새납소리에 마음이 끌려 40

인상기

민족적금지 41

마음에 드는 분수터 41

고국방문

통일을 그리며 42

조선의 관광지들을 찾아서 (1) 44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뿔다 47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2) 48



사 화

매국명장을 키운 녀인 49

민족의 향기

독특한 우메기를 만들어봅시다 50

야 화

병풍속의 호랑이 51

우리 나라 금속공예발전에 대하여 52



력사인물

재능있는 너류작가 강경애 54

10. 4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55

《위협》라경, 도적이 때를 든다 56

상 식

동국병감 34

건강에 좋은 조금료법 48

조선속담 (잔인성) 53

유모아

놀라운 대답 54



조선민족의 원시조인 단군릉을 개건확장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 [주체82(1993). 9.]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를 빛내여주시어

오늘 우리 조국에서는 민족의 찬란한 역사와 문화가 활짝 꽃피어나고있다. 설명절, 정월대보름 등 선조들이 예로부터 즐겨 오던 민속명절들과 음식, 옷차림, 레절 등이 민족적인것으로 장려되고 찬란한 민족문화유산들이 나라의 국보로 귀중히 보호관리되고있다. 민족이 단순히 민족의 세태나 풍속이 아니라 거기에 바로 민족의 숨결과 넋이 깃들어있고 민족의 고유한 모습과 발자취가 어려있기에 오늘 조국인민들은 그 민족적특성을 더욱 빛내어나가고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잘 보존하고 계승발전시키려는 조국인민들의 귀중한 의지가 담겨져있는 평양대극장, 인민문화궁전, 옥류관, 인민대학습당 등은 민족을 버리면 민족을 잃어버릴수 있다는 진리를 가슴속깊이 새겨준다. 더우기 세계에 이름난 프랑스나 이탈리아민속공원의 수십배나 되는 평양민속공원을 돌아보느라면 인류발생의 려명기로부터 평양을 중심으로 진화의 계단을 툭아온 민족의 삶의 자취들을 빈구석이 있을세라 다 찾아내시어 조선민족이야말로 가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빛내이는 길에서

장 문명하고 강대한 민족이라는 자부심을 심어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고마움에 가슴이 찢어든다.

민족성은 민족의 고유한 성질이지만 그것은 저절로 보존되고 이어지지 않는다.

조국땅 어디 가나 살아넘치는 민족의 넋과 정기는 민족성을 귀중히 여기고 빛내여오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지금으로부터 20년전, 평양시 강동군 대박산 기슭의 룡선마루에 조선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증시해주는 단군릉이 우뚝 솟아올랐을 때였다. 개건된 단군릉을 돌아보시러 현지에 나오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단군릉이며 단군릉수축비 등 45정보에 달하는 단군릉구역의 구석구석을 다 돌아보시었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수수천년 역사의 풍운속에 신화로만 전해져오던 단군을 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시조릉을 완벽하게 개건하여 유구한 조국의 역사와 민족의 슬기를 자자손손 긍지높이 전할수 있게 하여주신것은 우리 민족의 대경사로, 일대 사변으로 된다고, 역사적구보인 단군릉을 잘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말씀을 새기며 그이를 우러르는 일군들에게는 잊지 못할 주체83(1994)년 7월 6일 경제부문 책임일군협의회를 오랜 시간에 걸쳐 지도하시는 속에서도 단군릉의 최종형성안을 보여주시던 김일성대원수님의 모습이 뜨겁게 안겨왔다. 한해전인 주체82(1993)년 9월 27일에도

단군릉을 찾으시고 민족의 시조릉이 온 세상에 빛나도록 개건확장할데 대하여 가르쳐주신 수령님이시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신화적인 존재로 역사의 안개속에 가리워져있던 단군을 실재하였던 인물로, 조선민족의 원시조로 찾아주시고 공백났던 민족사를 바로잡아주신 수령님께서서는 한생토록 심혈을 기울이신 중대한 역사문제가 드디어 해결된 것이 그리도 기쁘시여 현지에 나오시여 룡의 자리도 잡아주시고 룡을 조선민족의 원시조의 무덤답게 동명왕릉보다 더 높고 크게, 돌로 계단식으로 웅장하게 개건할데 대하여 일일이 가르쳐주시었던것이다.

돌이켜보면 20세기 후반기까지만 하여도 단군은 일제의 악랄한 조선민족말살정책의 영향으로 인하여 전설적인 인물로 인정되어왔었다. 일제는 조선에 대한 군사적강점기간 조선민족의 넋을 빼앗고 야마도민족에 동화시키기 위하여 《내선일체》, 《동조동근》을 뇌까리며 단군관계서적들과 조선고대사를 비롯한 술한 책들을 모조리 불살라버리는 전대미문의 만행을 감행하였다. 단군조선의 역사를 영원히 말살해버리려는 일제의 책동은 이에만 그치지 않았다.

《문화통치》를 표방한 일제총독은 《조선청년들에 대한 교육시책에서 먼저 조선사람들이 자신의 일체 역사전통을 알지 못하게 만듦으로써 민족의 혼과 민족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 자기 선조를 경시하고 멸시하게 하며 조선청년들로 하여금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어 ...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할것이니 그때에 일본의 사적과 일본인물, 일본문화를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기대될것이다.》라고 떠벌이였다.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받드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어버이수령님의 유훈관철의 첫 사업으로 단군릉개건공사를 힘있게 벌리도록 해주시고 그 방도를 가르쳐주시었다. 몸소 건설주, 시공주가 되시여 그처럼 마음쓰신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의 손길에 의하여 단군릉은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로 웅장하게 일떠설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서는 일찍부터 역사유적과 유물을 민족의 재보로 귀중히 여기시며 그것을 발굴하고 보존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려오시었다. 해방후 첫시기부터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관심을 돌려오신 수령님께서서는 생사를 판가리하는 준엄한 전쟁의 포화속에서 조선봉건왕조의 실록을 건져내도록 하시였으며 그후에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민족의 귀중한 유산들을 적극 찾아내고 옹게 계승발전시켜나갈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주체81(1992)년 5월의 어느 하루에만도 왕건왕릉, 공민왕릉, 선죽교 등 개성시의 역사유적들을 다 돌아보시며 귀중한 민족문화유적유물들을 잘 다루고 빛내어나갈데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신 어버이수령님이시었다.

그이의 숭고한 애국애족의 뜻을 그대로 이어나가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찌기 김일성종합대학



동명왕릉



남문루와 잇닿은 정방산성

에서 혁명활동을 벌리시던 시기부터 민족문화유산을 잘 알고 그것을 귀중히 여기며 우수한 미풍양속을 더욱 발전시키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그이께서는 새 거리를 형성하거나 건물을 지을 때에도 유적유물들을 보존하는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고 칠보산의 개심사, 정방산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평양민속공원



의 성불사, 구월산의 월정사 등 수많은 역사유적들, 명승고적들이 자기의 옛모습을 그대로 보존하면서 슬기로운 민족의 역사와 문화전통을 보여주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리하여 수많은 민족문화유산들이 찾아지게 되고 민속명절이며 민속놀이, 민속음식이며 조선식례법의 우수한 전통을 적극 살려나가게 되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평양민속공원도 사람들에게 자기 민족에 대한 긍지를 안겨주는 생동한 애국주의교양장소로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고 규모와 내용, 형식에 있어서 손색이 없게 하시려고 세계의 이름난 민속공원들을 다 돌아보고 오라고 대표단까지 파견해주시었다. 공원설계에 관한 학술안을 구체적으로 지도해주시고 강력한 설계집단을 무어주신 장군님께서서는 위대한 생애의 마지막시기에도 공원을 최상의 수준에서 건설하기 위하여 설계와 시공에 이르기까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체101(2012)년 9월 평양민속공원을 찾으신 경애하는 김정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은 장구한 역사적기간 독자적인 발전의 길을 걸어오면서 우수한 민족성을 지니게 되었다고, 후대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조선민족제일주의정신을 가슴깊이 간직할수 있다고 하시었다.

후대들에게 자랑높은 역사와 문화에 대한 긍지와 민족적자존심을 북돋아주고 민족의 기개를 만방에 떨칠 애국의 마음을 소중히 새겨주시려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여러차례나 평양민속공원을 찾으시어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고 수백개나 되는 건설대상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며 역사주의적원칙과 현대적미감에 맞게 공원을 잘 꾸릴데 대하여 가르쳐주시었다. 그리고 유적유물들마다에 조선사람들은 물론 외국사람들도 알아볼수 있게 해설문판을 잘 만들데 대하여서도 일

단군릉



일이 깨우쳐주시었다.

참으로 평양민속공원에는 장군님께서 주체적립장에서 민족의 유구한 역사를 빛내이시려 한평생 기울이신 크나큰 로고와 심혈 그리고 민족의 흘러온 역사만이 아니라 조국의 새 모습을 위하여 마음쓰신 원수님의 고결한 충정과 의리가 맥맥히 흐르고있다.

백두산과 정일봉, 주체사상탑과 당창건기념탑, 국제친선전람관을 비롯한 무수한 기념비적창조물들의 모형을 품어안고 우뚝 솟아있는 모습은 돌아볼수록 평양민속공원은 어제의 흘러간 역사만을 보여주는 곳이 아니라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남기신 귀중한 애국유산이며 **김정일**조선의 오늘뿐아니라 래일의 모습까지 그려보게 하는 곳이라는것을 알수 있게 한다.

역사는 과거를 돌이켜보는 거울이지만 위대한 **김일성**민족사는 래일을 비치는 거울이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령도자를 높이 모셔야 유구한 민족사도 빛날수 있으며 민족, 그것이 없으면 민족도 없음을 조선의 현실은 말하여주고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묘향산력사박물관의 일부

선조들이 창조한것을 잊지 않도록

《어깨장단이 좋지》

언제인가 현지도의 길을 달리던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차에서 내리시여 모내기가 한창인 벌을 바라보시다가 아예 그 자리에 앉으시었다.

일군들은 그이의 관심을 끈것이 무엇일가고 생각해보았다. 그러다가 그이께서 주시하는 곳이 바로 모내기철참에 벌어진 춤판이라는것을 알아차리었다.

팽파리와 새납소리에 어울려 농장원들과 지원자들이 춤을 추고있었다. 거리가 좀 멀었지만 바람을 타고 들려오는 농악소리, 그들의 흥에 겨운 어깨춤은 확연하였다.

미소를 지으신채 춤판을 주시하시던 그이께서도 알릴락말락 어깨장단을 치시는것 같았다.

로동의 희열속에 펼쳐놓은 춤판이 펴 마음에 드신듯 그이께서는 만족해하시었다.

한 일군이 그이께 다가가 말씀드리었다.

《모내기철참의 어깨춤이 그렇게 좋습니까.》

《어깨장단이 좋지. 자, 보시오. 얼마나 건드러진가.》

된장국을 먹는 우리 조선사람들에게는 그저 어깨장단이 제일 좋단 말입니다.》

그러시며 그이께서는 오래도록 춤판을 바라보시었다.

《우리 음식이 제일입니다》

주체74(1985)년 3월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과 조선음식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시었다.

《조선음식은 기름기가 많지 않아서 느끼하지도 않고 또 습습하지도 않습니다.

조선음식은 생신하고 감칠맛이 있으며 먹음직하고 향기로

와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합니다.》

그이께서는 조선음식이 특별히 맛이 좋은것은 무엇보다도 음식감들이 좋기때문이라고 하시며 우리 나라의 사계절이 명확하고 비가 알맞춤하게 오며 기온이 따뜻하고 땅이 기름져 낱알과 낱새, 산나물과 과일과 같은 음식재료들이 잘 자라고 잘 여문다고 하시었다. 그러시고는 조선음식이 맛이 좋은것은 여러가지 양념감들을 고르롭게 쓰는 음식솜씨가 발달되어있고 세련되어있기 때문이라고 하시면서 그 양념감에 대하여 말씀하시었다.

조선음식에서 맛을 돋구는 기본양념감은 간장, 된장, 고추장, 소금이다. 말하자면 음식의 기본 맛은 간을 어떻게 맞추는가 하는데 달려있는것이다. 조선음식의 양념감에는 이밖에도 파, 고추, 마늘, 생강, 후추, 겨자와 같이 자극성이 있고 향기가 있는것도 있고 깨, 참기름과 같이 고소한 맛을 돋구는것도 있으며 꿀, 물엿과 같이 단맛을 내는것도 있다. 특히 우리 나라에는 음식의 맛을 돋구는 양념감들도 다양한데 튀기같은 기름기있는 음식이나 소고기편육에는 초간장, 젓갈장을 쓰고 물고기회에는 초고추장, 겨자장을 쓰며 소고기회에는 참기름, 소금장을 쓴다.

그이께서는 이어 조선음식의 색깔과 모양, 그것을 만드는데서 높은 과학성과 문화성을 보장하고있는데 대해서와 그 종류가 많고 다양한것 등 우리 나라 음식에 대하여 오래도록 말씀하시면서 《참으로 우리 음식이 제일입니다.》라고 하시었다.

웃는 말

어느날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한 일군에게 조선말에 웃음을 표

현하는 말이 몇가지나 되가고 물으시었다.

일군은 생각을 더듬으며 《하하》, 《허허》, 《호호》 하고 쏘아내려가다가 웃고말았다.

화제를 바꾸어 에스키모인들이 주로 어디서 사는가와 그 사람들의 말에 눈과 관련된 말이 얼마나 되는지 아는가고 물으신 그이께서는 말씀씀을 이으시었다.

에스키모말에는 하늘에서 내리기 시작하는 눈, 방금 내린 눈, 내린지 오래된 눈, 녹기 시작하는 눈 등 눈이 내린 시간에 따라 달리 부르는 말이 여러가지가 된다고 한다. 에스키모말에 왜 눈과 관련된 말이 많은것 같은가.

일군은 그들의 생활이 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때문인것 같다고 말씀드리었다.

그이께서는 일군의 말을 긍정해주시며 말씀하시었다.

사람들의 말은 생활이 만들어 낸다.

언어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말에는 웃음과 관련된 표현이 수백개나 된다고 한다. 우리 말에 울음과 관련된 말보다 웃음과 관련된 말이 많다는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가. 아마도 조선말처럼 웃음과 관련된 말이 많은것은 세상에 없을것이다.

그이께서는 유쾌히 웃으시며 말씀씀을 계속하시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이것은 우리 인민들이 예로부터 늘 웃음속에 살아왔다는것, 다시말해서 우리 인민들이 대단히 낙천적인 인민이라는것을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 하나의 사실을 통해서도 우리 민족의 우수성에 대하여 더욱 똑똑히 알고 그것을 더욱 빛내여나가야 할것입니다.》

본사기자

유적유물을 찾는 사람들

4년전 5월 어느날이었다. 평양시 강동군 란산리 주현동 마을에 있는 자연동굴로 20여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둘러막히고 멀지 않은 곳에 민족의 시조릉인 단군릉과 옛 토성이 있는 마을의 지리적특성이 그들의 마음을 끌어당긴것이었다.

그들은 동굴안에 쌓인 퇴적층을 파내기 시작하였다. 수백m나 되는 퇴적층의 두께로 보아 그 안에 반드시 가치있는 옛 유물들이 있을것만 같은것이 그들의 심리였다. 그러나 그 발굴과정

이 험치 않았다. 외진 동굴안에서 련일 낮과 밤을 보내며 순수 삽과 곡괭이로 굳고굳은 퇴적층을 조심히 파헤쳐야 하였다. 그리고 진펄속에서 바늘을 찾듯 특별히 여겨지는 부분들을 채로 치고 확대경으로 가려보면서 하나하나 선별해나가야 하였다. 동굴속에서 장마철의 습기와 무더위, 모든것을 땅땅 얼구는 겨울철의 혹한을 이겨내며 그렇게 3년, 마침내 그들은 신석기시대의것으로 추정되는 유물들을 찾아냈다. 수백점에 달하는 사람뼈와 20여점의 질그릇조각, 2점의 조개칼...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더없이 귀중한 보물들이었다.

그들은 지체없이 유물들에 대한 고증사업에 달라붙었다. 붓으로 유물들을 씻고 부스러진것들은 풀로 붙이며 원상복원하였다. 실금 하나, 돈을무늬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심히 관찰하며 연구를 하였다. 사람머리뼈의 크기와 형태, 이발 등에 대한 수십, 수백번의 컴퓨터화상처리 및 통계분석, 발굴한 짐승뼈들을 수백권에 달하는 문헌자료들과의 대비속에 종과 개체수별로 분류, 찾아낸 유물들을 통하여 유적의 형성시기와 자연환경고찰...

드디어 그들은 수천년세월 두터운 흙



순천시 동암동유적에 대한 발굴과 연구사업을 하고있다.



속에 묻혀있던 역사의 비밀을 밝혀냈다. 그 의의는 참으로 대단했다. 우선 조선예류형사람의 형성발전과정과 신석기시대 선조들의 무덤형식과 매장풍습 등을 보다 과학적으로 밝힐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 나라에서 신석기시대문화는 청동기시대를 거쳐 단군조선의 문화로 순차적으로 줄기차게 이어져왔다는것을 과학적인 물질적자료에 의해 다시금 확증하게 되었다.

바로 그렇게 30여년을 살아온 그들이었다. 그 나날 그들에 의해 수만년전의 《황주사람》의 비밀이 밝혀져 우리 나라에서 아시아적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신인이 출현하였다는것을 고증하게 되었고 우리 나라에서의 구석기시대 존재자체를 말살하려는 제국주의어용사가들의 꾀변을 다시금 명백히 론박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이 발굴고증한 금옥리유적, 서산성유적 등 많은 유적유물들에 의하여 인류력사의 렬명기로부터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민족

의 유구성을 보다 확고한 물질적자료로 거듭 과학적으로 증명하게 되었다.

누가 알아주진 말진 그 어떤 대가를 바람이 없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나라의 심심산골과 계곡 등을 찾아다니며 역사의 유물-민족의 보물을 찾아온 그들, 설사 한곳에서 몇달, 지어 몇년을 바쳐 유물을 발굴하지 못하였을 때에도 앞으로 후대들이 그곳에서 또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표말들을 꽂아놓으며 혼연히 웃음짓던 그들, 가정보다 먼저 직장의 일,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생각하며 앓는 속에서도 자기들의 일손을 멈추지 않은 그들이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인류진화발전사연구실의 연구사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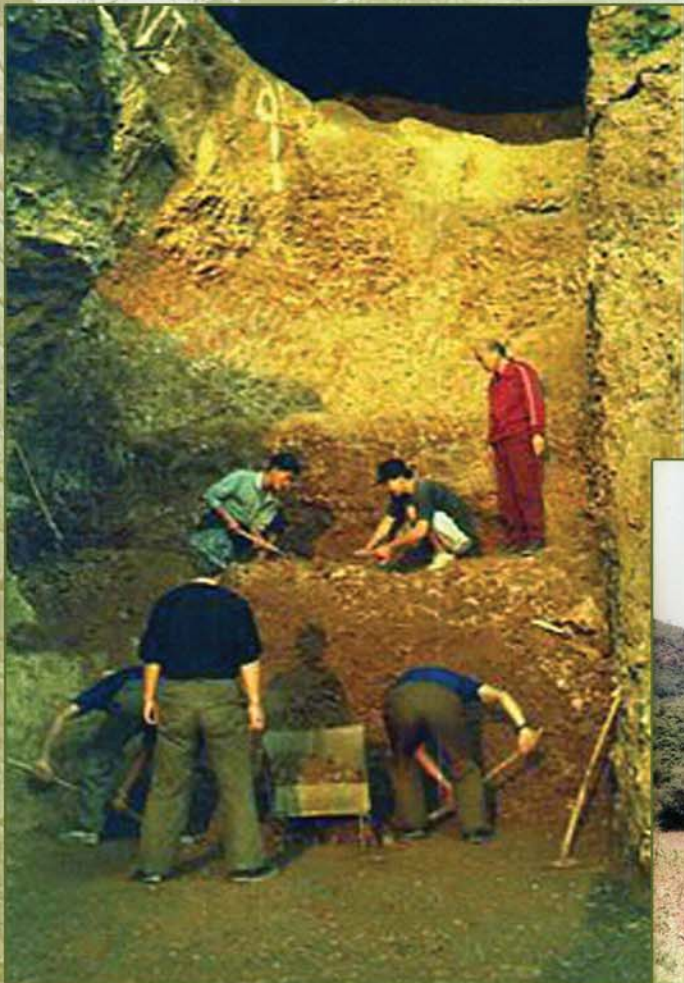
열렬한 민족애를 지닌 사람들만이 말라버린 옛 강자리 하나, 흔히 볼수 있는 조약돌가운데서도 귀중한 《보물》을 찾아내는 법이다.

글 본사기자 홍정혁
사진 본사기자 최원철

연구사들이 발굴한 유물들의 일부



청파대동굴유적을 발굴하고있는 연구사들 (1999년-2004년)





변함없는 귀중한 재보로

사업을 놓고서도 그것을 잘 알수 있다.

고구려시기 평양성 내성의 동쪽 장대(군사지휘터)에 세워진 련광정은 조선봉건왕조시기인 1670년에 다시 세운 우리 나라 루정건축물의 대표작이라고 말할수 있는 건축물이다.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우선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부식된 련광정의 목부재들을 교체하기 위한 준비사업을 빈틈없이 진행하였다. 그리고 대보수작업을 시작한 첫날부터 일정계획을 맞물려 조직사업을 짜고드는것과 함께 대상에 따르는 기술기능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더욱 강화하여 련광정의 건축 예술적가치를 원상그대로 살려나가기 위하여 하였다.

특히 단청을 새로 하는데 맞게 만수대창작사를 비롯한 전문기관들의 방조밑에 단청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익히는것과 함께 한번의 붓질을 해도 련사유적으로서의 품위가 원래의 수준에서 보장되도록 서로 돕고 이끌었다.

보수사업만이 아니다. 이곳 관리소의 관리원

들은 련사문화유적유물들에 손상이 간것이 없는가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사소한 부족점이라도 나타날세라 제때에 대책을 세워나가고있다.

뿐만아니라 문화유적에호월간(4월과 11월)을 리용하여 사람들속에 련사문화유적에 대한 선전사업을 활발히 벌려 그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을 높여주고있으며 소보수와 단청사업을 집중적으로 하고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리지 않고 이곳 일꾼들과 종업원들은 유적유물관리와 주변정리사업을 책임적으로,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그를 통한 교양사업도 대상의 특성과 요구에 맞게 해나가고있다.

이들은 련사문화유적들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학생들은 물론 해외동포들에게도 우리 선조들이 남긴 유적유물들에 대하여 잘 알려주어 그들이 조국의 유구한 련사와 문화, 선조들의 애국심,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대하여 정확히 알도록 하고있다.

(우리의 지혜와 열정이 그대로 주춧돌이 되고 기둥과 단청이 되어 련사유적들이 조국의 귀중한 재보로 계속 빛을 뿌리게 하자.)

이것이 바로 이곳 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의 변함없는 마음이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반만년의 유구한 련사와 찬란한 문화가 빛나는 우리 조국에는 그 어디에나 선조들의 성실한 노력과 뛰어난 재능에 의하여 창조된 련사유적 유물들이 많다.

자기의 옛모습을 그대로 안고있는 유적유물들마다에는 그것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지혜와 정열을 바쳐가는 사람들의 숨은 노력이 깃들여있다.

그가운데는 평양시 민족유산보호관리소의 일꾼들과 종업원들도 있다.

나라의 민족문화유산보호정책에 의하여 이 관리소가 조직된지는 오래다.

그때부터 이들은 평양의 련사와 더불어 자랑높은 대동문, 보통문,

최승대, 평양종 등 련사유적유물들에 대한 보수관리계획을 세우고 이 사업을 련사주의적원칙에서 깐지게 진행하여왔다.

올해에 들어와 진행된 련광정에 대한 대보수

원상대로 보존하기 위해

유적관리를 정상적으로 하고있다.



우치선의 자녀들

우치선, 《고려청자의 왕》으로 불리는 그는 70여 년 동안 조선의 유명한 고려청자상감기법을 완성시킨 도자기창작가이다.

그의 마를줄 모르는 창작적열정에 의하여 700여 년 깊은 잠에 들었던 《고려청자》가 다시 깨어나 세계도자기력사상 천하일품으로 이름 떨치게 되었다.

딸 우복단



잉어무늬투각장식꽃병

청자의 넋을 이어 창작에 열중하고있다.



《청자국화무늬단지》〔주체 53(1964)년〕, 《해바라기상감꽃병》〔주체 67(1978)년〕, 《평양풍경무늬꽃병》〔주체 69(1980)년〕, 《구름학무늬호로주전자》〔주체 77(1988)년〕, 《구름학무늬반상기》〔주체 86(1997)년〕를 비롯한 그의 작품들은 은근하면서도 깊이있고 아름다운 색조와 세련된 형태, 독특한 장식기법 등으로 하여 조국에서는 물론 중국, 일본 등 세계 많은 나라에 진귀한 보물로 알려져있다.

김일성상계관인이며 인민예술가인 우치선이 84살을 일기로 생을 마친 때로부터 어 느덧 11년이 지나갔다.

세월은 흘러가도 우치선의 뛰어난 창작기 품과 기법들은 그의 자녀들에 의하여 오늘 도 이어지고있다.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 창작가들인 우복단(54살)과 우철룡(50살)은 아버지의 대를 이어 고려청자의 전통적기법을 현대 적미감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가고있다.

하여 그들은 지난 기간 국제, 국내전람



손녀 우영란

회, 전시회, 박람회들에 100여점의 작품을 출품하여 상장과 많은 금메달 및 은메달을 수여받았다.

지난 5월에 진행되었던 2014상해국제도자기에 술박람회에서는 도자기공예 《잉어무늬투각장식꽃병》(우복단 작), 《포도무늬호로주전자》(공훈 예술가 우철룡 작)에 최고상인 최우수창작상과 도자기류동상이 수여되었다.

세계의 많은 참관자들은 한결같이 《조선의 고려청자들이 밝고 부드러운 상감장식이 독특하고 형태와 색깔, 무늬에서 특성을 찾아볼수 있다.》라고 하였고 축전조직위원회 일군들은 《듣던바 그대로 고려청자기는 고상한 예술성과 조형미가 안겨온다. 밝고 우아하며 은근하고 깊이있는 조선의 고려청자기가 세상에서 제일이다.》라고 하면서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이었다.

우복단과 우철룡은 평양미술대학 공예학부를 졸업하였다.

만수대창작사 도자기창작단의 우치선가족창작실 실장인 우철룡은 고려청자의 전통적인 장식기법인 인장무늬를 위주로 하면서 독특한 형태와 겹상감장식기법들을 현대 고려청자들에 리용하고있다.

우철룡의 고려청자기는 무늬와 형태가 남성적이면서도 호리호리하고 툴동적이며 형태와 선들이 부드럽고 우아한것이 특징적이다.

《학구름무늬상감청자》, 《목란꽃 상감청자》, 《꽃과 새 상감청자》, 《란초무늬부각청자》 등 10여점이 국보로 소장되어있다.

우복단의 작품들에는 여성적인 섬세성이 그대로 비쳐지고있다. 지난 기간 베이징, 경덕진, 당산을 비롯한 국제도자기에술박람회들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신선어투각장식청자꽃병》, 《포도색상감장식청자꽃병》, 《국화, 코스모스 장식청자꽃병》 등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손자 우영진

우복단은 이렇게 말하였다.

《만수대창작사에는 두개의 가족창작실이 있다. 우리 가족창작실이 그중의 하나이다.

오늘도 창작실에는 아버지의 체취가 넘치고있다.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에 아버지가 순직할 때까지 있었다. 아버지는 늘 우리들과 함께 도자기를 창작하며 민족공예의 하나인 도자기에는 조선 사람의 슬기와 넋을 담아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지금도 귀전에 쟁쟁하다.》

우치선의 자녀들중 맏아들인 우길룡도 아버지의 권고로 체육계에서 미술계로 대담하게 방향 전환을 하였었다. 우길룡은 지금 넌로보장을 받고있다. 그는 우치선가족창작실에 자기의 아들과 딸인 우영진, 우영란을 함께 세웠다.

지금 우복단과 우철룡의 자녀들도 이곳에서 할 아버지의 뒤를 이을 마음을 안고 평양미술대학에서 열심히 공부하고있다.



글 분사기자 연 옥
사진 분사기자 최원철

포도무늬호로주전자



차광수가 찾은 길

(전호에서 계속)

원래 민족주의는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진보적인 사상으로서 발생하였다.

몰락의 비탈길을 굴러내려가고있던 왕조정치와 심연속에서 내우외환이 거듭되고 외세의 강요에 의한 개국의 진통으로 나라의 운명이 경각에 달하였을 때 개화의 등불을 들고 《자주독립》, 《보국안민》, 《척양척왜》를 부르짖으며 력사무대에 태어난것이 바로 민족주의라고 말할수 있다. 민족의 자주권이 외부세력에 의해 참혹하게 짓밟히고 국토가 리권쟁탈을 위한 렬강들의 각축장으로 변하고있을 때 민족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조가 등장하여 대중의 지도사상으로 된것은 력사발전법칙에 부합되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신흥부르조아지들이 민족주의기치를 들고 민족운동의 선두에 섰다고 하여 민족주의가 처음부터 자본가계급의 사상이었다고 보는것은 공정한 견해라고 볼수 없다.

봉건주의를 반대하는 부르조아민족운동시기에는 인민대중의 리익과 신흥부르조아지의 리익이 기본적으로 일치하였다. 따라서 민족주의는 민족공동의 리익을 반영하였다.

그후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부르조아지가 반동지배계급으로 되면서 민족주의는 자본가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사상

적도구로 되었다. 그러므로 민족의 리익을 진정으로 옹호하는 참다운 민족주의와 자본가계급의 리해관계를 대변하는 사상적도구로서의 부르조아민족주의는 항상 구별해보아야 한다. 이것을 동일시하게 되면 혁명실천상에서 엄중한 파오를 범하게 된다.

우리는 부르조아민족주의는 반대하고 경계하지만 참다운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지지하고 환영한다. 왜냐하면 참다운 민족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사상감정이 애국에 바탕을 두고있기 때문이다. 애국심은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공통적인 사상감정이며 공산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이 민족을 위한 하나의 궤도에서 서로 화합하고 단결하고 협력할수 있게 하는 최대공약수이다. 애국애족은 공산주의를 참다운 민족주의와 련결시켜주는 대동맥이며 참다운 민족주의를 련공의 길로 이끌어주는 원동력이다.

지난날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은 이 애국애족의 기치밑에 나라를 근대화하고 외적에게 침탈당한 국토를 되찾기 위한 투쟁에서 적지 않은 공적을 쌓아올리었다.

오늘 북과 남에 서로 다른 제도와 사상이 존재하는 분단상황하에서도 우리가 조국을 통일할수 있다는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그 실현을 위해 완강하게 투쟁하는것은 바로 공산주의

자들과 참다운 민족주의자들이 다같이 소유하고있는 애국애족에서 민족화합의 대업을 이룩할수 있는 절대적인 원천을 보고있기 때문이다.

단일민족국가인 우리 나라에 있어서 진정한 민족주의가 곧 애국주의로 된다는것은 움직일수 없는 하나의 원리이다. 이런 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나는 애국적인 진정한 민족주의자들과의 단결과 협력을 언제나 중시하였고 그것을 우리 혁명승리의 확고한 담보로 보았다.

이것은 청년학생운동을 하던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한평생 견지해온 견해이고 립장이다.

나는 차광수를 만난 그날도 참다운 민족주의와 부르조아민족주의는 구별해보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차광수는 말을 다 듣고나서 나의 손목을 덥석 잡으며 격한 목소리로 《성주》하고 내 이름을 불렀다. 내가 리론이 월등해서 그를 납득시켰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모든 문제를 조선의 구체적현실에 기초하여 판단하며 공리공담이 아니라 혁명실천을 중시하는 나의 립장과 사고방식이 차광수한테 공명을 불러일으켰던것 같다.

그때부터 차광수는 자기의 속을 터놓기 시작하였다. 나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순간에 변하였다. 지금까지 내가 주로 말을 하고 그는 질문을 하며 듣기만 했다면 그때부터는 내가 묻

지 않아도 그가 스스로 이야기를 하였다.

속을 터놓고 사귀어보니 차광수는 대단한 멋쟁이였다. 나이는 나보다 일곱살이나 우었는데 일본에 건너가 대학공부까지 한 사람이였다. 그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했지만 마음씨가 무한정 좋아서 청년들을 많이 끌었으며 맑스주의전문가로 굉장한 인기가 있었다. 차광수와 박소심이 맑스주의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논쟁할 때면 서로 더 잘 안다고 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화요파의 두령 김찬은 차광수한테 맞다들기만 하면 쪼쪼매군 하였다. 김찬은 맑스주의에 대한 논쟁에서 차광수한테 견디지 못하였다. 김찬은 공산당 거물이라고 그렇게도 신비스럽게 생각하던 차광수가 그를 몇번 만나보고난 다음부터는 중학생 다루듯 하였다. 차광수와 서상파인물 신일용을 논쟁시켜본일이 있는데 그도 차광수한테는 어찌지 못하였다.

차광수의 특징은 목을 왼쪽으로 약간 기울이고 다니는것이였다. 어렸을 때 목에 종치가 나서 고개를 삐뚤어지고 다닌것이 버릇이 되어 그렇게 되였다고 한다.

차광수는 평안북도사람이였다. 어려서부터 동네사람들한테서 총명하다는 소리를 들어오던 그는 10대의 나이에 일본에 건너가서 고학을 하였다. 그가 맑스-레닌주의서적들을 읽고 공산주의를 동경하기 시작한것이 바로 이때였다.

차광수가 새 사조를 섭취하며 힘겨운 고학살이를 하고있을 때 일본에서는 공산주의운동이

하강기에 들어서고있었다. 창건된지 얼마 안되는 일본공산당은 1923년 6월에 있는 당지도핵심들에 대한 1차검거와 간토대지진시기의 백색테러로 하여 몹시 약화되었으며 그후 지도부에 잠입한 기회주의분자들의 책동으로 인하여 해산되고 말았다. 공산주의운동이 퇴조기를 걷고있는 일본땅에 앉아 무슨 운동을 모색하며 맑스의 책이나 뒤적거린다는것은 싱거운 일이었다.

차광수는 서울로 돌아왔다. 서울에 돌아와서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을 만나보았다. 그런데 같은 맑스-레닌주의를 한다면 무슨 파가 그리 많고 무슨 갈래가 그리도 복잡한지 갈피를 잡을수가 없었다.

차광수는 어느 파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가르고 자기가 갈길을 찾기 위해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와 그 계보, 파벌관계를 품을 놓고 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것은 미궁을 헤매는것과 다름이 없었다.

3인1당, 5인1파식으로 파와 갈래는 수두룩하였다. 각파는 서로 날카롭게 대립되어있었지만 실제상 사상적립장이나 정치적견해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없었다.

차광수는 자기가 국내에 있을 때 종파분자들의 책동가운데서 제일 너절하게 생각한것은 락양관사건이였다고 하였다. 락양관사건이란 화요계, 북풍회계 인물들이 락양관이라는 료리점에서 회합을 가지고있을 때 이 두파의 결탁에반감을 가지고있던 서울파사람들이 회합장소를 습격하고 폭행을 가하여

몇사람에게 중상을 입힌 사건이다. 중상을 입은 사람들은 서울파의 가해자를 걸어 일제의 재판기관에 형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이런 사건이 있는지 며칠 안되어 북풍회파사람들이 서울파인물들에게 폭행을 가하여 중상을 입혔다. 그러자 이번에는 서울파에서 중상을 입은 사람이 일제의 재판기관에 찾아가 북풍회파의 가해자를 걸어 형사소송을 하였다.

이런 파벌싸움이 발전하여 마지막에는 저마끔씩 테로단들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파와 대결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공산주의운동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찌면 저렇게까지 험하게 타락할수 있을가 하고 주야장탄하던 차광수는 생각끝에 서울을 떠나 만주로 들어왔다. 만주는 소련과 가까운 곳이니 거기에 가면 국제공산당의 연줄도 잡을수 있고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새 길도 찾을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한줄기의 희망때문이었다.

만주에서 그는 정우회선언에 맞다들었다.

종파분자들은 정우회선언에서 조선공산주의운동을 분파투쟁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서로 중상할것이 아니라 공개적인 토론을 하자고 하였으며 리론투쟁을 전개하여 대중에게 진정한 진로를 가리켜줘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정우회선언의 주장대로 공개적인 논쟁을 하게 되면 덕을 볼것은 조선공산주의운동이 아니라 일제의 고등계형사들이었다.

(다음호에 계속)

조선로동당의 뿌리

조선로동당이 자기의 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한 때로부터 어느덧 예순아홉해가 되어온다.

식물이 뿌리가 있어 줄기가 자라고 잎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으며 존재하듯이 조선로동당의 거룩한 면모와 강대한 위력은 그 뿌리를 떠나 생각할 수 없다.

조선로동당의 뿌리, 그것은 바로 80여년전 화전의 언덕에서 마련되었다.

주체15(1926)년 10월 17일에 화전에서 결성된 타도제국주의동맹(《ㄷ. ㄷ》)은 소박한 조직이었다. 조직의 규모도 작았고 세상사람들도 조선에 타도제국주의동맹이 있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ㄷ. ㄷ》가 내세운 강령과 활동원칙은 조선혁명의 역사에 참다운 혁명적당을 낳고 승리의 한길로 떠밀수 있을만큼 거대한 잠재력을 가진 것이었다. 그 폭과 깊이에 있어서 청년들이 내세운 투쟁목표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웅대하고 뚜렷한 《ㄷ. ㄷ》의 강령은 자주권이야말로 나라와 민족, 인민대중의 생명선으로 된다는것을 역사상 처음으로 밝혀주었다.

자체의 힘으로 제국주의를 때려부시고 민족적 독립을 이룩하며 인류의 리상사회를 일떠세울데 대한 《ㄷ. ㄷ》의 투쟁강령은 조선혁명가들의 녀이었고 승리의 표대였다.

《ㄷ. ㄷ》가 추켜든 자주성의 원칙은 조선로동

당건설과 활동의 드림없는 혁명적원칙이었고 《ㄷ. ㄷ》로부터 시작된 총대중시, 군사중시의 고귀한 전통은 조선혁명의 피줄기였다.

조선로동당이 창건된 첫날부터 오늘에 이르는 력사적기간 군대와 인민의 모든 투쟁을 승리로 향도할수 있는 근본비결은 바로 자주, 선군의 원칙을 확고히 틀어쥐고 총대와 일심단결을 필승의 무기로 규정한 위대한 투쟁강령과 투쟁방도를 가진 데 있었다.

자주, 선군의 원칙을 떠나 수령의 유일사상체계와 유일적령도체계가 확고히 선 당, 튼튼한 대중적지반을 가진 근로인민의 통일적인 당, 자기 활동의 전기간 백승을 떨쳐온 위대한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말할수 없다.

《ㄷ. ㄷ》가 내세운 최종목적인 인류의 리상사회건설이 조선로동당의 최종목표인 강성국가건설을 통하여 종국적으로 실현되어나가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ㄷ. ㄷ》가 내세운 투쟁강령의 거대한 무게를 심장으로 절감하게 하고있다.

《ㄷ. ㄷ》가 결성된 때로부터 조선로동당이 창건되기까지 근 20년간 당창건의 앞길에 가로놓인 시련과 난관은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그러나 조선의 혁명가들은 그 모든 시련과 난관을 박차고 독자적인 당조직을 건설하였으며 자기 식의 과학적인 당건설경험을 축적하고 그에 토대하여 해방직후인 주체34(1945)년 10월 10일 마침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을 온 세상에 선포할수 있었다.

돌이켜보면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도 혁명의 려명기에 태어난 전위조직이 당건설과 당활동의 전과정에 지침으로 삼아야 할 투쟁강령과 활동원칙을 제시하고 그렇듯 쟁쟁한 핵심들을 키워 당의 존재와 위력을 완벽하게 담보한 예는 없다.

《ㄷ. ㄷ》가 내세운 웅대한 리상과 목표가 있었기에 이 땅우에 세상에 둘도 없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가 일떠설수 있었다.

《ㄷ. ㄷ》의 전통이 있어 령도자의 두리에 당과 군대와 인민이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친 일심단결을 이룩할수 있었고 인민군대가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자라날수 있었으며 조선혁명은 실패와 좌절을 모르고 오직 승리의 한길로만 전진해올수 있었다.

세기가 바뀌고 세대도 여러번 교체되었지만 《ㄷ. ㄷ》결성의 력사적의의와 생명력은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더 부각되고 있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에 들어선 오늘에도 조선혁명은 《ㄷ. ㄷ》가 열어놓은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나가고있다.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로 나아가는것은 조선혁명의 백년대계의 전략이다.

세상이 열백번 변하고 그 어떤 시련이 닥쳐온다고 하여도 조선로동당은 《ㄷ. ㄷ》의 전통을 끝까지 고수하고 대를 이어 빛내어나갈것이다.

김정숙교원대학 교원 김봉원

수필

영원한 총비서

어느덧 단풍이 물드는 10월에 들어선다.

추억은 지나간 옛일에 대한 생각이지만 해마다 10월을 맞을 때면 나에게서는 주체86(1997)년 10월의 환희롭던 날이 어제일처럼 감회롭게 어려온다.

그때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을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시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온 나라가 환희로 들끓었다.

가는 곳마다에서 그이를 조선로동당 총비서로 높이 모신 긍지를 안고 사람들이 모여 춤바다를 펼쳤으며 늙은이로부터 어린 학생들에 이르기까지 기쁨에 겨워 그 환희의 춤바다에 뛰어들었다.

조국인민들만이 아니었다. 세계진보적인류가 그이의 총비서추대를 축하하여 축전을 보내오고 경축행사들을 벌리었다.

절세위인들을 모신 민족의 긍지를 늘 가슴에 안고 살아왔지만 그때처럼 조선민족의 한성원이 된 긍지를 가슴뿌듯이 느껴본적이 없었다.

얼마나 조국인민과 세계진보적인류가 이날을 바라왔던가.

돌이켜보면 조국인민들이 민족의 어버이이신 김일성대원수님을 뜻밖에 앓은 상실의 아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역경을 이겨낼수 있는것도 위대한 장군님께서 계시였기때문이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로동당을 승리와 영광의 한길만을 걷는 불패의 당으로, 인민대중속에 깊이 뿌리내린 어머니당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바쳐오신 심혈과 헌신에 대하여 생각하던 나에게서는 불현듯 소학교시절의 일이 떠올랐다.

어느날 나는 새 교복을 타입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새 교복을 입은 나를 이윽도록 바라보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였다.

《나라에서는 형편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에게 해마다 교복을 해입히고있다.

어버이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너희들을 나라의 왕으로 내세워주고 보살펴주시기에 ... 너는 그걸 잊으면 안된다.》

유년시절, 봄날의 그 저녁에 나의 작은 심장에 선물처럼 새겨지던 어머니의 그 목소리는 일생 나에게 지울수 없는 추억을 안겨주었다.

그때부터 나의 가슴속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아버지의 모습으로 더욱 깊이 새겨지게 되었다.

더우기 나라의 무료교육의 혜택속에 대학을 졸업할

래양은 마음속에 찬연하고 우정은 천하를 밝힌다

- 위대한 김일성주석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

(전호에서 계속)

우리들은 그후 조선에 찾아 올 때마다 금수산태양궁전에 계시는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뵈옵게 되었다.

김정일동지께서 지니신 료리도덕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 바닷물의 바다에서 헤어나갈 줄 모르던 우리들도 번쩍 정신을 차리고 주석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우리 가문의 옛집에 《김일성주석기념관》을 꾸리게 되었다.

《김일성주석기념관》을 꾸리는 것은 주석님의 하해같은 은정을 받아안은 우리들의 걸초보은의 마음으로부터 우리나라의 정신적요구로 되었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도 기념관을 세우는 것을 더없이 신성하게 여기었으며 하나하나의 사적물에 보은의 한 마음을 실었다.

우리는 한해동안 공사를 벌려 위대한 주석님의 서거 1돐을 맞으며 《김일성주석기념관》을 개관하였다.

외국의 한 가정에서 위인의

기념관을 꾸리는것은 세상에 처음이었지만 우리는 그것을 너무도 웅당한 도리로 여기었고 걸초보은의 첫걸음으로 생각하였을뿐이다.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들에게 돌려주신 우의의 정은 날이 갈수록 더욱 뜨거워졌다.

그중에서도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주신 화환을 장울화렬사묘에 진정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던 1997년 10월 27일을 잊을수 없다.

김정일총비서께서는 일군들에게 장울화렬사가 장렬하게 희생된 때로부터 60돐이 되는 날에 화환을 보내줄데 대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참으로 신비스러운 일이었다. 5년전 김일성주석님께서 장울화렬사를 위하여 기념비를 보내주실 때와 같이 김정일총비서께서 보내주신 화환이 무송에 도착하자 하늘에서는 또다시 려사의 명복을 빌어 종이돈을 뿌리듯 흰눈이 내려 대지를 덮어주었다.

화환은 김일성주석님께서 세

워주신 장울화렬사기념비앞에 정중히 진정되었다.

《장울화렬사를 추모하여 김정일》

화환의 꽃송이들은 려사에게 보내는 주석님과 김정일동지의 인사를 전하여주고있었고 붉은 댕기는 세월의 흐름에도 변색되지 않는 우정을 말하여주고있었다.

진실한 우정은 영생하는 위인들의 심장의 음향이고 지울수 없는 려사의 메아리이다.

화환진정의식에 참가한 사람들은 장울화렬사가 비록 60년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생의 불길은 계속 타오른다는것을 폐부로 느꼈다.

그들모두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에 의하여 김일성주석님과 장울화렬사의 우정은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는것을 엄연한 현실로 받아들였다.

김정일동지께서는 장울화렬사의 서거 70돐을 맞으며 또다시 화환을 보내주시여 고귀한 옛정이 세기를 넘어 변함없이 흐르게 해주시었다.

그들이 심장으로 터친 로동당만세소리는 만사람의 가슴을 얼마나 뜨거운 격정으로 끓게 하였던가.

그토록 온 나라 인민이 그에게 모든 운명을 의탁하고 하늘처럼 믿고 살아왔다. 조국인민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장군님의 품은 어머니당의 품이었으며 그이를 떠난 조선로동당에 대하여 생각해볼 수도 없었다.

하기에 나는 온 세상에 이렇게 명백히 말하고 싶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은 어제든 오늘도 래일도 영원히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이시며 조선로동당의 총비서직함은 오직 그이의 존함과 결부하여 부를 수 있다고.

안철룡

그이께서는 해마다 설날이 오면 주석님을 대신하여 우리들에게 신년축하장을 보내주시었으며 70돐 생일을 맞는 나에게 은정어린 선물도 보내주시었다.

우리 중국에는 보검은 영웅에게 드린다는 속담이 있다. 중국에서는 예로부터 장검을 집을 지키는 보검으로 여겨왔고 권력, 승리, 힘을 상징하는것으로 전하여왔다.

언제인가 우리는 김정일동지께 청동으로 만든 옛 장검을 선물로 올리는 영광을 지니었다.

온 가문이 모여앉아 많은 생각끝에 도달한 선택이었다.

어찌 그렇지 않으랴.

김정일동지는 천하대적도 이기시는 영웅이실뿐아니라 의리와 인덕으로 인간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시는 영웅중의 참영웅이시었다.

시공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진실한 우정은 려사의 풍운속에서도 풍화되지 않고 인간세계를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준다.

어떤 대가와 보상도 바라지 않고 바치는것을 곧 행복과 락으로 여기는 그 우정은 인간세계를 끝없이 정화시켜주며 천하를 밝게 비치고있다.

그것은 고상한 료리도덕으로 건설하는 사회주의에 대한 힘있는 긍정이며 자주적인것으로 하여 더없이 아름다운 인간본성에 대한 긍지높은 주장이고 레찬이라고 생각한다.

인간사랑, 인간존중의 화원을 펼쳐주신 대성인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동지의 옛정은 오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맥맥히 이어지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강성국가건설을 이끄시는 바쁜 속에서도 2012년 10월 장울화렬사의 서거 75돐, 생일 100돐을 맞으며 자신의 명의로 된 화환을 보내주시고 위로연회를 차려주도록 크나큰 은

정을 베풀어주시었다. 김정은동지의 후더운 은정이 고이고고인 연회상을 마주한 우리들의 마음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행복한 순간이면 언제나 그리하듯이 김일성주석님의 인자하신 음성이 들려왔다.

금수산의사당의 연회석상에서 소고기료리가 들어오고있을 때 식사안내표를 보시던 주석님께서는 장유에게 말씀하시었다.

마음놓고 먹어라. 다른 사람들의것은 소고기이지만 내건 돼지고기야. 네가 소고기를 안먹는다는것을 알고있다. ...

언제인가 주석님께서는 식탁에 둘러앉은 손자손녀들에게 말씀하시었다.

내가 동북의 무송에서 오래동안 생활하면서 그곳 빙탕후루에 대하여 대단히 흥미를 가지었는데 그 맛이 좋았다. 오늘 너희들이 왔기때문에 내가 료리사들에게 만들어주라고 하였다. 어디 비슷한지 너희들이 맛을 보아라.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생일 80돐을 맞는 우리 부부에게 귀중한 선물을 보내시고 조선대표단을 파견하여 축하하도록 하여주시었다.

그리고 지난해에는 80고령의 우리 부부가 30여일동안 평양의 초대소에 머무르면서 유명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하여주시었다. 다시는 앓을 잘 볼수 없다는 체념에 빠지었던 안해가 광명을 되찾게 되었고 나는 로년기이면 어쩔수 없다던 병들을 털어버리고 로당의장하게 되었다.

평양의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는 보석화로 형상한 나의 아버지 장울화의 초상도 있다.

사랑에 국경이 없고 과학에 국경이 없는것처럼 혁명에도 국경이 없다는것이 위대한 주석님께서 지니시였던 지론이였다.

나의 아버지 장울화를 조중친선의 상징으로, 국제주의의 세계적모범을 보여준 거성으로 빛내여주신 김일성주석님의 숭고한 우의의 세계를 오늘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켜가고계시는 것이다.

우리 장울화일가가 받아안은 뜨거운 사랑의 려사는 진정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만이 창조하실수 있는 숭고한 우의의 서사시이다.

세월은 흘러 장울화가문에 6대가 태어났다.

그애가 태어나던 날 나에게는 장울화의 고손을 보고싶다고 하시던 위대한 주석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하여 나는 아이에게 속삭였다. 애야, 어서 크거라. 크거들랑이 세상에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사랑이 있고 한없이 굳건한 뉴대가 있는가를 알게 될것이다.

너도 그 아름다운 화원을 꽃피우는 한송이 꽃이 되거라. ...

위대한 주석님께서 서거하신 때로부터 스무번째의 돌기가 새겨졌지만 김일성주석님과 장울화렬사의 우정은 계속되고있다.

위대한 주석님의 우정은 장울화렬사의 생을 영원토로 이어주고 우리 후대들을 변함없이 보살피신다.

세기가 바뀌고 강산은 변하여도 주석님의 우의의 숭고한 모범은 끝없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흘러들며 인간세계를 아름답게 정화시켜줄것이다.

인류의 대성인이신 김일성주석님은 영원히 우리의 마음속에 계시고 그이의 숭고한 우의심과 고결한 인덕은 천하를 밝히고있다.

(끝)

장금천 (중국항일혁명투쟁연고자 장울화의 아들임.)

열과 정을 더해주시며

지난 6월 1일 평양에육원에서 울린 원아들의 목소리가 잊혀지지 않는다.

그날 원아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애육원을 찾아오시자 저마다 그이의 품을 파고들며 매달리며 이렇게 불렀다. 《아버지!》라고.

하다면 철부지 아이들마저 아버지라 부르며 따르는 그이의 열과 정은 어디에 기인된 것인가.

지난 4월말 김정숙평양방직공장에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인민군군인들이 180여 일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 건설한 공장의 노동자합숙을 돌아보시였다. 침실, 식당, 목욕탕, 미용실, 상점, 치료실... 온갖 편의봉사시설들을 현대적으로 갖춘 합숙은 그곳 종업원들의 말그대로 노동자호텔이었다. 바로 여기에는 합숙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부지도 정해주시며 건설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뜨거운 마음이 어려여있다. 당시 그이께서는 고마움의 인사를 울리는 공장일군들에게 인민들에게 질 좋은 옷감을 안겨주기 위하여 마음쓰시던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을 생각하며 더 많은 천을 생산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장의 노동계급을 더 큰 위훈으로 불려일으키시였다.

돌이켜보면 이해에도 그이께서는 그렇게 인민을 이끄시였다.

그이께서는 주체103(2014)년 1월 1일에 하신 신년사에서 올해 우리의 투쟁은 인민의 아름다운 리상과 꿈을 앞당겨 실

현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라고 강조하시면서 《승리의 신심드높이 강성국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비약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나가자!》라는 구호를 제시하시였다. 그리고 그 실현으로 전체 인민을 힘있게 불려일으키시였다. 지난 2월 그이께서는 전국농업부문분조장대회 참가자들에게 사회주의농촌체제의 기치를 높이 들고 농업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킬데 대한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시였고 국가과학원을 찾으시여서는 과학자들에게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고 그들을 위한 위성과학자거리와 과학자휴양소를 훌륭히 건설할데 대한 조치를 취해주시였다. 어느 한 공장에 가지여서는 그곳 노동계급에게 앞으로 남들이 엄두를 내지 못하는것을 만들어내겠다는 야심만만한 배짱을 가지고 주체적인 관점과 립장에서 기성기술 문헌에도 없는것을 독자적으로 개발하도록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그뿐이 아니였다. 그이께서는 중앙동물원에 가지여서는 모든 대상들을 인민들에게 웃음과 희열을 안겨주는 즐거운 휴식장소로 꾸려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류경구강병원과 옥류아동병원에 가지여서는 인민들이 건강한 몸으로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건설장에 가지여서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성과를 이룩하자면 그 담당자들인 과학자, 연구사들의 생활문제를 책임적으로 풀어주어야 한다고, 나라의 인재들을 육성하

는데 한생을 바쳐가는 교육자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힘주어 말씀하시고...

지난 6월 한달사이에만도 그이께서는 평양의 축섬을 과학기술전당이 자리잡을 과학의 섬으로 전변시키기 위한 사업, 새로 제작한 급강하물미끄럼대와 함께 각종 물놀이기재들을 많이 생산하여 전국각지의 물놀이장에 보내주기 위한 사업, 대동강과수종합농장과 대동강과일종합가공공장에서 생산을 더욱 늘이기 위한 사업, 기상수문국에서 기상관측과 예보를 잘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평양시 사동구역 장천남새전문협동농장에서 온실남새생산의 본보기를 창조하도록 하기 위한 사업 등 많은 사업을 현지에서 지도하시였다.

언제나 굶은 길, 험한 길 가림없이 인민을 찾아 걷고걸으시며 그 인민에게 사랑과 믿음으로 열과 정을 더해주시는 그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일군들에게 발이 닳도록 인민을 위해 뛰고 또 뛰어야 하며 인민을 가슴에 품어안고 자기의 더운 피로 보살펴주고 이끌어주어야 한다고 당부하시는 그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사랑, 인민을 행복의 절정우에 내세우시려는 아버지의 뜨거운 사랑이 있다.

하기에 지금 조국인민들은 새벽문 여시고 떠나신 그 길 지금은 어데 계실가 온 나라 돌보는 발걸음소리 꿈에도 들려옵니다라고 노래 《우리 원수님》을 절절히 부르고있다.

본사기자 흥정혁

방문기

보금자리의 주인들

《집을 떠나서 외지에 오면 부모와 집이 그림이지만 우리 합숙은 그런 생각이 전혀 들지 않는 한생 떠나고싶지 않은 집입니다. 이렇듯 훌륭한 합숙을 건설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에 더 많은 천을 생산하는것으로써 보답하겠습니다.》

이것은 대동강반에 새로 일떠선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에서 울려나오는 처녀방직공들의 하나와 같은 목소리이다.

우리는 그들의 목소리에 끌려 새로 건설된 김정숙평양방직공장 노동자합숙으로 향하였다. 여러 호동으로 된 합숙건물은 풍치수려한 대동강과 잘 어울려 마치 한쪽의 그림처럼 아름다웠다.

우리가 합숙에 도착하였을 때 마침 교대작업을 끝낸 방직공들이 합숙으로 들어서고있었다. 오늘도 계획을 넘쳐수행하였다고 웃음꽃을 피우는 그들은 견방종합직장의 방직공처녀들이였다.

《교대작업을 끝내고 합숙에 들어설 때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노래가 절로 나온답니다.》 방직공 리향미의 말을 들으며 우리는 1층에 들어섰다.

우리의 눈앞에는 넓고 시원한 홀이 펼쳐졌다. 홀과 련결된 복도에는 전자열람실을 갖춘 도서실들과 상점, 치료실, 세탁소, 옷수리소 등이 있었다. 또 지하에는 아담하면서도 정갈한 목욕탕이 꾸려져있었다.

1층과 지하에 꾸려진 치료 및 봉사시설들을 돌아보며 우리는 1호동 1층 4호실에 먼저 들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다녀가신 호실이였다.

아담하게 꾸려진 방에는 텔레비존과

록화기, 소독기, 전기다리미 등 합숙생들의 생활에 필요한 비품들뿐아니라 옷놀이판, 꼬니판을 비롯한 유희오락기재들까지 갖추어져있었다. 그리고 위생실이 달린 세면장에는 탈수기도 놓여있었다.

《우리가 여기에 보금자리를 편 때로부터 여러달이 흘러갔습니다. 정말이지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습니다. 하루일을 끝내고 이렇게 텔레비존도 보고 옷놀이도 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습니다.》

방직공 남소연이 하는 말이였다. 삶의 희열을 한껏 느끼는 그의 말을 듣는 우리의 눈앞에는 우리 세상은 로동계급의 세상이며 로동계급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시던 절세위인들의 숭고한 영상이 어려왔다.

그러는 우리에게 공장일군은 해방직후 평양방직공장(당시)을 찾으시여 해방전 감옥같은 공장에서 일제의 군사적강점밑에 노예로동을 강요당하던 방직공들의 손을 다정히 잡아주시며 녀성로동자들의 생활과 건강을 잘 돌봐주도록 해주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어머님, 주체98(2009)년 7월 30일 한여름의 무더위속에서도 공장을 찾으시여 남녀평





등권법령발포일을 맞는 공장의 여성노동자들을 축하해주시던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모습을 오늘도 잊을수 없다고 말하는것이였다. 그의 말은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어 주었다.

이 호실뿐만아니였다. 우리가 돌아본 매층의 호실들과 층들에 꾸려진 홀들마다에는 것처럼 다심하고 은혜로운 절세위인들의 풍모를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일대원수님의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었다.

1호동 5층으로 오르던 우리는 홀에 있는 의자들에 앉아 열심히 학습을 하는 방직공들의 모습을 보게 되였다.

합숙으로 들어서는 길에 만났던 견방종합직장의 방직공처녀들이였다.

방직공 리은정은 이렇게 말하였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입니다. 질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 하자고 해도 모르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교대후에는 여기 홀에서 기술학습도 하고 작업과정에 있었던 경험도 교환하군 한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5층 1호실에서 《배우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방직공처녀들의 노래소리를 뒤에 남기며 합숙의 부를 돌아본 우리는 식당에도 들리였다.

식사칸은 물론 주방도

실참에...

좋은 천을 더 많이 생산 하자고 해도 모르교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교대후에는 여기 홀에서 기술학습도 하고 작업과정에 있었던 경험도 교환하군 한답니다.》

그의 말을 증명이라도 하듯 5층 1호실에서 《배우자》의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방직공처녀들의 노래소리를 뒤에 남기며 합숙의 부를 돌아본 우리는 식당에도 들리였다.

식사칸은 물론 주방도



휴게실

현대적인 설비들로 갖추어진 식당은 200석과 600석의 두개 식사칸으로 되어있었다.

바로 그 식당에서 지난 5월 1일 전세계 근로자들의 명절을 맞는 공장노동자들을 축하하는 5. 1절경축 노동자국가연회가 당과 국가의 간부들의 참석밑에 진행되였다. 그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여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고마와 모든 방직공들이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웃음소리, 노래소리가 넘쳐나는 합숙을 바라보는 우리의 가슴마다에는 평범한 방직공들의 생활을 위해 바쳐지는 조국의 사랑과 사회주의 제도의 고마움이 다시 한번 되새겨졌다.

이 땅에 더 높이 울려퍼질 인민의 웃음소리, 노래소리를 그려보며 우리는 합숙을 나섰다.



호실에서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목욕탕



합숙상점



합숙도서관



합숙식당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속에서

-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부총장 원일경과 본사기자의 대담 -

기자: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한창 개건되고있는 모습을 보고 싶어 찾아왔다.

원일경: 그럴것이다. 주체 78(1989)년 5월에 학생소년들을 위한 종합적인 과외교양기지로 일떠선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지금 보다싶이 종전의 모습을 찾아볼수 없을 정도로 변모되어가고있다.

우리 학생소년들이 안겨사는



당(조선로동당)의 품을 형상한 궁전의 외부는 화강석과 고급건축재로 다시 시공되었으며 소조실과 극장, 체육관, 수영관이 학생소년들의 심리적특성에 맞게 꾸려지고 지방의 학생소년들이 숙식할수 있는 합숙도 훌륭하게 건설되고있다.

궁전내부장식도 아이들의 마음속에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이 움터나고 세계를 딛고 올라서겠다는 꿈을 키울수 있도록 새롭고 특색있게 하고있다.

개건될 궁전에는 소조원들이 다방면적인 지식과 풍부한 문화적소양을 갖추수 있도록 최신형

의 컴퓨터들과 현대적인 악기들, 각종 체육기자재들도 새롭게 마련되게 된다.

기자: 이야기만 들어도 벌써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이 눈앞에 보이는것만 같다.

원일경: 정말이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궁전에 모시였던 그날 나는 그이께서 지니신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속에서 우리 후대들의 앞날이 더 밝고 창창할것이라는것을 더욱 가슴뜨겁게 느끼었다.

그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체취가 어려있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조선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유능한 과학자, 체육인, 예술인후비들을 더 많이 키워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원수님께서는 근로하는 인민의 아들딸들이 마음껏 재능의 나래를 펴게 하자는것이 당의 확고한 결심이라고 하시면서 궁전 건물우에 《세상에 부럼없어라!》, 《달려가자 미래로!》라는 글발을 세우자고 뜨겁게 말씀하시며 궁전개관을 올해중에 끝낼데 대해서와 설계와 자재보장, 건설력량편성에 이르기까지 개건에서 나서는 대책들을 일일이 세워주시였다.

기자: 궁전을 돌아보시면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을 나라의 왕인 우리 어린이들이 자기의 희망을 마음껏 꽃피우는 사랑의 요람으로, 세상에 둘도 없는 아이들의 궁전으로 개건함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후대사랑, 미래사랑을 세세년년 길이 전해가자고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원일경: 그렇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사랑을 오늘도 그대로 이어가시는 인민의 자애로운 아버지이시다.

대원수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을 궁전에 모시였을 때 아이들을 제일로 사랑하시던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에 사무쳐움을 금할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우리 궁전에 여러차례 찾아오시여 학생소년궁전은 나라의 왕인 어린이들이 와서 활동하는 곳이기때문에 잘 건설하여야 한다고, 어린이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은 우리의 설계, 우리의 자재, 우리의 기술, 우리의 힘으로 지었으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궁전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수령님께서 탄생하신 유서깊은 만경대에 우리 궁전의 터전도 잡아주시고 여러차례에 걸쳐 설계형성안을 보아주시였으며 건설현장을 찾으시여서는 왕이 사는 맛이 나게 건설하도록 세심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그리고 주체79(1990)년 4월 6일에는 학생소년들과 함께 궁전 공원에 나무도 심어주신 장군님이시였다.

후대사랑, 미래사랑의 대화원속에서 자라나고있는 아이들의 행복의 노래소리는 이제 머지 않아 훌륭히 개건된 만경대학생소년궁전에서 더 높이 울려 퍼지게 될것이다.

* * *

단 상

고향집의 독

사람들에게는 하나의 크지 않은 사실앞에서도 커다란 감동을 받곤 하는 때가 있다.

얼마전에 그러한 계기가 있었다.

우리가 재로씨야동포들과 함께 아름다운 만경봉기슭에 자리잡은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고향집을 찾았을 때였다.

추너났은 수수한 초가집에는 위대한 대원수님의 할아버님과 할머니를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께서 사용하시던 농기구들과 생활도구들, 가정용품들이 옛 모습그대로 보존되어있었다.

동포들은 누구나 하나의 찌그러진 독앞에서 오래도록 발걸음을 옮기지 못하고있었다.

비록 해외에서 살고있어도 조선사람인 그들이 장이나 김치를 담그는 용기인 독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있었지만 그렇게 찌그러진 독은 아마도 처음보는가싶었다.

이때 한 동포녀성이 물었다.

《만경대일가분들은 이 찌그러진 독을 어디에 리용하였습니까?》

강사 허은정은 그들에게 이렇게 해설해주었다.

《예, 김일성대원수님의 할머니이신 리보익녀사께서는 생애의 마지막시기까지 이 독을 사용하시였습니다. 이 독은 오지독인데 주로 장을 담그었습니다.》

강사는 해설을 이었다.

사실 그 독은 오작품이였는데 140년전인 1874년에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증조할머님이신 김씨녀사께서 생활이 어려워 동전 두알 늑거리로 사오신것이였다.

대원수님의 할머니이신 리보익녀사를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은 늘 독이 찌그러져서 볼모양은 없지만 독에 담긴 장맛이야 변하겠는가, 이 독에 담긴 피눈물의 사연을 옛말하면서 잘살게 될 좋은 세상이 꼭 오게 될것이다라고 하시면서 장을 담그시였다.

오늘도 리보익녀사를 비롯한 만경대일가분들의 체취가 느껴지는 찌그러진 독,

뜨거운 사연을 전하는 그 독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던 동포들은 고향집에 모신 리보익녀사의 사진을 우러렸다.

녀사는 일제에게 짓밟혔던 지난날 조국땅 그 어디에서나 볼수 있던 평범한 녀성이였고 수수한 가정의 주부였으며 친근한 어머니이시였다.

하나 리보익녀사께서는 모진 가난과 고역속에서도 민족의 절개를 지켜 굳세게 살며 싸워나갔었다. 녀사께서는 자제분들에게 사람은 언제나 대가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으며 아드님과 손자분들을 모두 나라를 찾기 위한 성스러운 혁명의 길에 내세우시고 그분들의 투쟁을 적극 뒤받침해주시였다.

하기에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을 해방하시고



주체34(1945)년 10월 14일 만경대고향집을 찾으시였을 때 녀사께서는 두팔로 그이를 부여안으시고 너무 기쁘시여 《... 기어이 돌아왔구나! 이게 꿈이냐 생시냐!》라며 눈물을 흘리시였다. 그러시면서 《너를 보니 한생애 쌓인 시름이 다 풀리는구나! ... 그런데 ... 아버지, 어머니는 어데다 두고 이렇게 혼자 왔느냐. ... 같이 오면 못쓴다더냐!》라고 하며 수령님의 가슴을 두드리시였다.

녀사의 심정이 이처럼 비통할진대 만리타향에 무주고혼이 되어 누워있는 선친들의 유해마저 모시지 못하고 고향집사립문에 홀몸으로 들어서신 위대한 수령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찢어지는듯 아프시였을것인가.

고향집의 찌그러진 독,

그 독을 통해 동포들은 위대한 애국가정의 참모습을 보았다.

진정 동포들은 넓지 않은 고향집뜨락에서 인간의 재부는 결코 돈에 있는것이 아니라 그가 세운 애국의 높은 뜻에 있다는것을 새겨안게 되였다.

본사기자 연 옥

5만여정보의 풀판이 조성된 세포지구에서 축사, 살림집, 관리시설건설이 기본적으로 끝나고 지금은 가을철 풀씨파종이 한창이다.

풀판개간에 이어 풀씨파종에서도 시간을 앞당기며 련일 혁신을 일으키고있는 개척자들의 모습은 조국의 래일을 펼쳐보이고있다.

세포땅이 전하는 이야기

세포등판은 나라를 빼앗겼던 그 세월 일제가 침략전쟁을 위한 군마들을 키워내는 말목장으로 만들었던 곳이다.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에는 미제와의 치렬한 공방전이 벌어진 곳이기도 하다.

그러나 개척자들은 잡관목의 뿌리만이 아니라 3만여발의 폭발물들을 걷어내고 행복의 씨앗을 뿌



자연풀판(우)과 인공풀판(아래)개간에서 혁신하고있는 개척자들



조선속도창조로 들끓는

렸으며 저주로운 미제의 땅크잔해들을 녹여 뽑은 철로 살림집과 축사들을 일떠세웠다. 수수천년 잠자던 대지가 깨어나 놀라운 전변을 가져왔다는 사실자체가 사변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올해 신년사를 하시며 세포등판건설을 비롯한 대건설전투에 펼쳐나신 건설자들이 부닥치는 난관을 이겨내며 자연을 길들여 당(조선로동당)의 원대한 구상을 앞당겨 실현할수 있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실 때, 세포지구 축산기지건설을 다그쳐 인민들에게 보다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안겨주어야 한다고 크나큰 믿음을 주실 때 개척자들은 너무나 감격하여 환호성을 터쳤다.

돌이켜보면 세포등판을 하나의 축산기지로 전변시키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구상이였고 유훈이었다. 해방된 이듬해에 벌써 이곳에 양목장을 내오도록 하여주신 김일성대원수님께서 공화국이 창건된지 두달후에는 이 지구에 축산을 전문으로 하는 큰 종합농장을 창설해주시고 많은 트랙토르와 자동차, 농기계들을 보내주시였다. 전쟁시기에도 세포땅을 찾으시여 여기서는 축산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하시며 농민들에게 잘살 방도를 가르쳐주시였고 전후에는 이곳의 축산문제를 관심하시며 따뜻한 사랑을 끊임없이 부어주시였다.

김정일대원수님의 한평생의 갈피에도 세포땅은 금문자로 력력히 새겨져 있다. 1980년대에 이미 세포군의 축산문제를 두고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신 장군님께서 수령님의 탄생 80돛에 즈음하여 해외동포들이 올린 80마리의 소도

세포지구

다름아닌 세포땅에 보내주시였다. 고난의 시기와 새 세기에도 전선길을 이어가시면서 세포바람을 부러운 바람으로 되게 하자고 하시던 장군님이시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그 절절한 념원을 가슴에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새로운 주체100년대 대자연개조의 첫 락성을 세포땅에서 울려주시였다.

조선속도창조를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세포땅에 펼쳐진 희한한 전변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열렬한 충정과 조국과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충정과 애국의 마음이 가져온 결실이다.

젊어지는 대지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인가. 폭풍쳐온 지난 2년간 세포등판에서는 놀라운 전변이 일어났다. 봄날의 꽃밭과 옥도벌의 모판처럼 정갈하게



밤낮이 따로없이 개간사업이 힘차게 벌어진다.



다듬어진 푸른 등판과 자주꽃자리풀, 오리새, 붉은토끼풀들속에 보이는 아담한 문화주택들과 축산건물들...

눈뿌리 아득한 세포등판을 따라 걸느라면 과연 이곳이 역세가 무성하던 어제날의 세포땅이었다는것을 믿기가 어렵다. 세포, 평강, 이천지구의 방목도로를 비롯하여 새롭게 형성된 천수백km의 도로와 5만여정보의 풀판조성, 방풍림조성을 위한 수백만그루의 나무심기와 수십만의 자급비료가 생산되어 풀판마다 들어간 성과는 참으로 자



휴식의 쉼참에



랑스럽다.

그렇다. 세포등판개간사업은 수만정보의 땅을 한꺼번에 정리하고 단숨에의 공격속도와 립체적인 정복방식으로 이루어진 실로 통이 크고 대단한 자연개조사업이었다. 개척자들은 풀 한포기, 나무

한그루를 심고 가꾸고 하나하나의 건물을 일떠세우느라 강추위와 비바람과 싸우고 피와 땀, 지어 목숨까지도 바치었다. 눈포, 비포, 바람포가 유명한 세포땅은 날씨만 나쁜것이 아니었다. 보습날마져 떡떡 부러져나가는 언땅을 힘겹게 갈아엎었던만 그들을 기다린것은 너무도 산성화된 땅이었다.

그러나 하나의 승고한 목적을 위해 떨쳐나선 개척자들은 남들이 10여년동안 수백정보의 땅을 개간하였다고 그토록 떠들던 자랑을 1 000정보도 아닌 5만여정보의 땅을 1년도 못되는 사이에 한꺼번에 정리하는 놀라운 성과로 놀러놓았다.

네번, 다섯번, 여섯번씩이나 갈아엎고 두번, 세번을 반복하여 풀뿌리와 나무뿌리, 돌들을 걷어내고 세벌, 네벌김을 매며 정성을 쏟아부은 땅에서 먹이풀들이 70~80cm나 자라났다. 조국의 대지가 젊어졌다. 세포등판에 차넘치는 창조외의 바람, 개척외의 바람, 승리의 바람은 조선외의 분때, 조선외의 영웅적투쟁정신을 보여주고있다.

래일을 내다보는 건설속도

지금 세포등판의 모든 풀판들에서 풀씨뿌리기 경쟁이 벌어지고있다. 평지, 습지, 경사지들에서 조건에 맞는 씨뿌리기방법이 도입되고있다. 평지에서는 평판식파종방법, 습지에서는 두둑식파종방법, 바람이 센 곳에서는 씨앗에 흙을 더 복돋아주는 이랑식파종방법으로 풀씨들을 심어나가고있다. 그런가 하면 풀씨들이 발붙이기 힘든 산비탈의 자연풀판에는 모이식파종방법이 도입되고있다.

하루빨리 래일을 앞당겨오려는 개척자들의 완강한 의지, 드높은 창조적열정은 놀라운 성과를 거두게 하고있다.



풀판과 함께 방풍림도 조성하고있다.



축사건설



풀판관리를 잘하고있다.

세포지구의 두번째 가을은 풀씨파종으로만 바쁜 계절이 아니다. 지난해까지 불과 1년남짓한 사이에 개간정리된 전야와 산기슭들에는 자연풍치와 어울리는 아담한 살림집들과 관리건물들이 경쟁적으로 일떠섰고 집집승과 풀판의 상태, 고기 및 젓가공품 생산 등 모든 요소들을 실시간 감시하여 생산을 조직하고 기술적으로 지도하는 종합생산지령실, 축산의 과학화를 담보하는 축산학연구소와 수의방역소, 인공수정소들도 완공을 눈앞에 두고있다.

멋쟁이모습을 뽐내는 세포려관이며 특색있게 일떠서는 농민휴양소, 젓가공공장, 고기가공공장, 살림집들도 현대적인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될 세포의 래일을 보여주고있다. 그런가 하면 외국손님들도 련이어 찾아와 시간을 다투며 새롭게 변모된 세포등판을 보고 걱정을 터치고있다.



양떼가 흐른다.

전변된 세포지구의 일부



참으로 세포지구는 조선속도가 가져온 기적이라는 말로밖에 달리 부를수 없는 놀라운 현실을 안아온 대지로 조국인민들의 가슴속에 간직되어있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한신애



우승의 꿈을 안고

지난 8월 어느날 우리가 룡라인민유원지를 찾았을 때였다. 유원지에 있는 물놀이장의 배구터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법석이고있었다. 방금 물놀이를 한듯 한 20여명의 녀학생들이 제법 선수교대까지 해가며 놀라운 솜씨로 경기를 하고있었던것이였다. 능란한 처널기, 재치있는 련락, 4번자리에서 강한 때리기... 알고보니 그들은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청소년체육학교경기대회 배구경기에서 최근 몇해사이에만도 세차례나 우승한 평양시 평천구역청소년체육학교의 학생들이였다. 우리는 대뜸 나어린 그 배구선수들에게 마음이 끌리였다.

우리가 그 체육학교를 찾은것은 그때로부터 며칠후였다.

마침 학생들이 배구훈련장에서 훈련을 하고있었다. 훈련장은 온몸을 땀으로 적시며 공을 다루는 학생들의 열기로 달아오른듯 하였다. 하나같이 얼굴에 흥조가 비긴 그들의 잡도리가 여간 룩룩치 않았다. 그들의 심정을 보여주듯 훈련장

의 벽체마다에는 《훈련, 훈련 또 훈련!》, 《하나하나의 동작을 정확히 숙련해나가자!》 등의 글발들이 나붙어있었다.

훈련철참에 우리와 만난 학생 장애경은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평천구역 봉학교급중학교 학생들이입니다.

체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국제경기에서 우승할 꿈을 안고 살것입니다. 류수련, 리지은, 엄은주동무들을 비롯한 우리모두는 그 꿈을 하루빨리 이루기 위해 공부가 끝나면 여기에 모여 열심히 훈련하고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실지 그들은 지금까지 높은 훈련목표를 내세우고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물론 그 과정이 험치 않았다. 조약과 속도문제 하나만 해결하기 위해서도 매일 수천번씩 뽀뽀운동을 하여야 했고 산야달리기, 계단에서의 뽀뽀기등을 거듭 반복진행하여야 했다. 무더운 여름철에나 추운 겨울철에나 이러한 훈련은 변함이 없

전술훈련에 힘을 넣는다.



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않지 않았다. 때로 명절과 일요일에도 훈련장에서 보냈고 때로는 발목이 심하게 부어올라 서있기조차 힘든 속에서도 입술을 깨물며 그날 훈련과제를 반드시 수행하고서야 집으로 향한 그들이였다. 그렇게 지치고 피곤이 겹친 속에서도 그들은 학습조를 못고 서로서로 도우며 매일 학습과제를 어김없이 수행하였다.

애쓴 보람이 있어 그들은 점차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해마다 진행되는 전국적인 배구경기들에서 련이어 높은 성적을 쟁취하였다.

지도교원 최영월은 우리에게 말하였다.

《체육에서는 청소년시절부터 기초를 잘 닦는것이 중요하다.

우리 체육학교에서는 각급 학교학생들속에서 운동감각이 좋고 체질적으로 균형이 잡힌 학생들을 선발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기초기술교육과 훈련지도, 체육인으로서 지녀야 할 도덕교양에 많은 품을 들이고있다. 승리는 경기전에 마련되는 법이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들으며 다시금 학생들의 모습을 둘러보았다. 앞날의 이름난 체육인이 되어 조국의 영예를 빛내일 그들의 꿈을 소중히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조선일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반복 또 반복



룡라곰등어관에서 휴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야외훈련



록화물을 통하여 배구기술을 습득한다.



학습에 열중하고있는 학생들





신동들을 키우는 교육자들

사람마다 자기 이름과 생일을 가지고있듯이 나라의 서북단 국경연선에 자리잡고있는 신의주시 본부유치원도 12월 1일이라는 자기 생일을 가지고있다.

올해는 이 유치원이 자기 생일 60돐을 맞게 된다.

둘이켜보면 유치원은 특출한 예술적재능을 가진 재간둥이들을 수많이 키워냈다.

선물을 받은 느낌과 그림책을 본 소감을 말해보라는 유치원원장의 말에 복은 웃고요 남은 울어요 우리모두 함께 웃자요 밝고밝은 해님 따라 모두 웃자요라고 그 자리에서 동요를 3살때 읊어만사람을 깜짝 놀라게 한 꼬마즉흥시인 김일신, 5살에 저대를 잘 붙여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음악신동으로 불

률동도 배워주고있다.



교편불을 통한 지능교육



리운 김전리, 김일성상계관작품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의 제명을 쓴 꼬마서예가 구대홍...

신동들의 뒤에는 훌륭한 교육자들이 있기마련이다.

그들이 바로 로력영웅이며 인민교원인 원장 김옥신과 강순희, 박춘옥, 박희선, 리영숙을 비롯한 이곳 유치원교양원들이다.

그들은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밝혀주신 어린이들의 천성적인 소질과 재능을 옹계 찾아내고 잘 키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문제들을 사업과 생활의 지침으로 삼고있다.

그들은 어린이들의 천성적인 재능을 찾아내기 위해 교양원들의 역할을 높이고 창조적극성을 높이 발휘해나가도록 하고있다.

교양원들은 우리 말, 셈세기를 하나 배워주어도 누가 기억력이 좋으며 글씨를 잘 쓰는가, 놀이를 하나 조직해도 누가 자연현상에 대한 관찰력이 높으며 보고 듣고 느낀것을 형상적으로 표현하려고 애쓰는가, 노래를 하나 배워주면서도 누가 음정기억력이 좋고 누가 리듬기억력이 좋으며 누가 예술적흥분력이 남다른가 등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두고 어린이들을 세심히 관찰하며 키워나가고있다.

이곳 교육자들은 정보산업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조건을



교양원들의 자질을 높여나간다.

훌륭히 마련하기 위해 더욱 분발하고있다.

오늘 최신설비들을 교실마다 갖추어놓고 수백종의 교편물들을 어린이들의 교육교양에 효과있게 리용하는것도 다름아닌 이곳 교육자들이다.

그들은 다방면적인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도 애쓰고있다.

그 과정에 10월8일모범교수자와 새 교수방법등록증 소유자가 더욱 늘어났다.

자기들의 실무수준을 높여나가는 과정에 어린이교육교양에 이바지할 새로운 교편물들이 높은 수준에서 창안제작되었는데 최근에만도 약 2만 7 000점에 달한다.

위대한 장군님의 후대 판을 그대로 이으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나라일

이 것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이곳 유치원어린이들이 올린 《김일성대원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장군님 그림습니다》, 《축원의 마음담아》, 《행복의 요람속에 꽃피는 재능》, 《아름다운 우리 나라》를 비롯한 글작품집, 그림작품집, 붓글씨작품집들과 뛰어난 재간둥이들인 조류정, 김해청, 김학영어린이들의 충정의 결의 편지도 일일이 보아주시였다.

이곳 유치원교육자들은 지난 기간 이룩된 성과에 자만함이 없이 항상 목표를 높이 세우고 조국의 미래를 떠메고나갈 어린이들속에서 더 많은 신동들을 키워내기 위하여 분발하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원선
사진 본사기자 김성철



해외동포들과 외국인들도 유치원을 자주 찾는다.



진정을 바쳐

주체93(2004)년 어느날, 영국의 옥스포드종합대학과 캠브리지종합대학에서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한 역사연구사가 수많은 청강생들앞에서 고구려벽화무덤에 대한 강의를 하였다.

조선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주는 그의 강의는 사람들의 심금을 울어주었다. 청강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으며 교단을 나서는 그는 민족유산보호지도국 연구사로 일하고있던 김명철이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며 그는 말하였다.

《강의를 하면서 저는 고구려벽화야말로 민족적 자부심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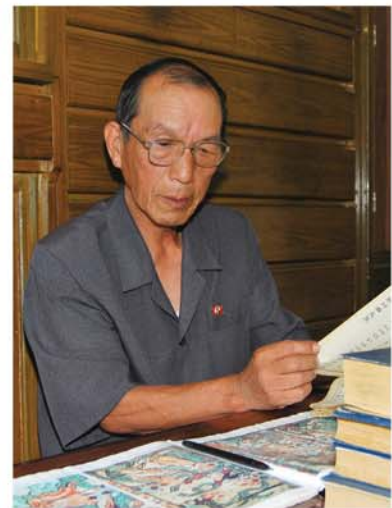
높여주는 귀중한 문화유산이라는데를 다시금 새겨안았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17살 나던 해인 주체52(1963)년 2월에 조국의 품에 안기였다.

력사학에 취미를 가지고있던 자기의 소질대로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 공부하던 나날과 달마다 장학금과 해마다 새 교복을 받으며 공부하도록 하여준 조국의 사랑이 고마와 문화보존연구소(당시) 연구사로 배치되어서도 그는 어렵고 힘들어누구나 선뜻 가기 저어하는 발굴대로 자신하여갔다.

그러나 발굴대생활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때로는 하나의 유물, 한점의 토기를 얻기 위하여 몇m²씩이나 되는 흙을 등짐으로 저내야 하는 때도 있었고 흔적조차 찾기 묘연한 유적을 놓고 고심어린 연구로 몇밤을 새우기도 하였다.

조국의 방방곡곡 그가 가지 않은 곳



김명철

이 거의 없었고 그의 손길이 가닿지 않은 유적들이 없을 정도였다.

비록 누가 보는 사람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도 없지만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민족의 력사를 고증하는 사업에 자기의 한생을 묵묵히 바쳐가면서도 그의 심중에는 늘 이런 생각이 떠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민족의 력사를 고증할수 있는 유적유물들을 더 많이, 더 완벽하게 발굴할것인가. 민족의 찬란한 문화와 력사를 더욱 빛내이는것이 바로 그 길에 있지 않는가.)

남편의 그 마음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었기에 안해인 흥기숙

주체44(1955)년에는 주석을 단 번역본으로 출판되었다.

동국병감은 B. C. 108년부터 고려 말기인 1382년까지의 약 1500년간에 있는 37차의 전쟁에 대해서 발단, 과정 및 결과들을 서술하고있다. 상권에는 모두 20차례, 하권에는 17차례의 전쟁사가 실려있다.

동국병감

영예군인의 안해가 된 딸을 바래우는 김명철



동국병감은 15세기 중엽 고대로부터 14세기 말까지 있는 전쟁자료를 모아 편찬한 군사관계책이다.

조선봉건왕조시기의 봉건관료학자 정린지(1396년-1478년), 리석형(1415년-1477년) 등이 자기들이 지은 력대병요들가운데서 조선관계부분만 추려서 편찬한 책이다. 상권, 하권 2책으로 되어있으며 1450년경에 편찬, 출판되었다.

녀성도 한생을 남편을 따라 이 사집을 지고다니면서도 힘든줄을 몰랐다.

오히려 남편이 하는 일이 자랑스럽고 그러한 남편이 돋보이기까지 하였다. 그렇게 30여년을 살아온 그들이였다.

부모의 이러한 모습은 자식들에게 말없는 거울로 되였다.

몇해전 어느날이였다. 평양시 대동강구역 동문유치원 교양원으로 일하고있던 막내딸 영실이가 영예군인청년과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부모에게 이야기할 때 김명철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사실 집안의 막내로 자란 영실이가 영예군인과 일생을 같이 하겠다고, 그것도 부모형제와 집을 멀리 떠나 북방의 자강 땅으로 가겠다고 할 때 아버지로서 그는 놀라움보다 걱정이 먼저 앞서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영실이가 특류영예군인인 장경남을 알게 된것은 지금으로부터 7년전인 주체96(2007)년 9월 어느날이였다고 한다.

그때 고려의과학학원에 입원한 동무의 면회를 갔던 그는 밀차에 실려 치료실로 가는 한 청년을 보게 되였다. 그가 바로 특류영예군인인 장경남이였다.

그를 바라보는 처녀의 가슴속에는 조국과 인민의 안녕을 지켜 자기의 꽃다운 청춘을 바

친 청년에 대한 존경과 그를 위해 무엇인가 바치고싶은 마음이 자리잡았다. 그때부터 처녀의 발길은 저도모르게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어느 하루도 병원을 찾지 않는 날이 없었다.

처녀의 가슴속에서는 청년에 대한 사랑이 움트게 되였다. 딸의 이야기를 듣고 김명철은 말하였다.

《내가 쉽지 않은 결심을 내렸구나. 하지만 그 결심이 일시적충동이나 그 어떤 단순한 계기로 인한것이라면 단념하라. 그러나 아버지는 너를 믿는다.》

그렇게 되어 영실은 부모형제들과 수도를 멀리 떠나 자강 땅으로 가게 되였다.

《사람들은 누구나 조국을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을 단순히 국어교과서나 시인들의 시에서만 쓰는 말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이 말을 하기에 앞서 자기자신부터 조국을 어머니라고 부를수 있게 떳떳하게 살아야 한다고 봅니다. 지나 우리 가정이 나라와 사회를 위하여 조금이라도 무엇을 한것이 있다면 어머니조국앞에 떳떳하려고 노력하였을때를 입니다.》

김명철의 이 말은 우리에게 많은것을 생각하게 하였다. 오늘도 그는 어머니조국을 위한 애국의 길에 자기의 모든것을 묵묵히 바치고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김강무

향식의 한때를 보내고있다.



책은 조선봉건왕조시기 봉건통치계급의 리익에 맞게 편찬된것만큼 인민대중의 역할을 무시하고 개별적인물들을 과대평가한것을 비롯하여 일련의 그릇된 평가를 하였고 응당 취급되어야 할 14세기 후반기 왜구를 격멸한 싸움들이 빠져있는 등 일정한 결함들도 가지고있다.

그러나 책에는 당시 인민들의 슬기롭고 용감한 반침략투쟁모습이 부분적으로나마 반영되어있으며 외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싸움에서 선조들이 발휘한 투쟁사적과 전

략전술의 일단을 보여주고있다. 동국병감은 지금까지 전해져오는 전쟁에 관한 조선봉건시대 력사책들가운데서 가장 오랜 책이며 고려사와 기타 책들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자료들이 실려있는것으로 하여 고대, 중세의 전쟁사와 군사예술, 군사제도, 선조들의 반침략투쟁업적 등을 연구하는데 자료적가치를 가진다.

* * *



검은모루유적이 발굴된 곳

고향소식

더욱 유명해지는 고장

얼마전 우리는 미국 뉴저지주에서 살고있는 최상선동포의 조카 최강국이 살고있는 황해북도 상원군을 찾았다.

평양-원산관광도로를 따라 하천을 끼고 산뜻하게 펼쳐진 군의 모습은 첫순간부터 우리의 마음을 끌었다.

읍지구를 향하여 시원하게 뻗은 포장도로며 그를 따라 국수집, 은덕원, 미래원 등 여러 봉사시설과 구색이 맞게 들어앉은 다층살림집들, 학생들의 글소리, 노래소리 랑랑한 학교들과 군문화회관, 뽀트놀이와 낚시질로 젊음이며 로인들의 웃음이 넘실거리는 물맑은 호수와 상원천...

볼수록 정이 갔고 의문도 커졌다. 그 옛날 보이는건 산뿐이요, 손에 짚건 돌뿐이었지만 산마다, 둔덕마다 좋은 일이 깃들것을 바라는 상원이라 불렀다는이 고장이 아닌가.

기쁨과 흥분속에 상원군의 모습을 사진기에 담던 우리는 낚시질을 끝내고 돌아가는 한 로인을 만나게 되었다.

《... 아마 사람들은 검은모루 유적이란 누구나 상원을 생각할것이요. 허나 검은모루유적이 발굴된 우리 상원군의 이름은 잘알아도 인류발상지의 하나로 유명한 고장이 어떻게 전변되었는가는 다 모를거요.》

하여 우리는 우연히 그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읍을 돌아보게 되었다. 통성을 하여 보니 그는 뜻밖에도 미국의 뉴저지주에서 살고있는 최상선동포의 조카 최강국이였다.

우리의 취재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그는 더더욱 기뻐서 우리를 안내하였다.

산이 군의 70%나 되어 오랜 세월 사람 못살 고장으로 불리워왔다는 상원군이였다. 그런 고장이 일제의 군사적강점에서

해방된 그날(1945. 8. 15)로부터 전변의 역사를 수놓기 시작했다. 해방전에는 물이 없어 논농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상원군에 강하천들을 리용한 여러개의 저수지와 수백km에 달하는 관개수로가 건설되고 대대로 내려오던 뚝배기밭들이 넓은 규격포진으로 일신되어 알곡생산에 이바지되고있다.

《저기를 좀 보시우. 우리 군에서는 산이 많은 특성에 맞게 산마다 쓸모있는 나무들과 약초들을 많이 심어 경제림을 조성하고 곳곳에 사슴, 젖소, 염소 등 여러 목장을 건설하였수다.》

그의 말대로 과연 그러하였다. 산은 산마다 푸른 숲 우거지고 인민들의 생활이 날마다 좋아



상원군인민병원에서의 먼거리의료봉사

저 만나는 사람들의 얼굴마다에 웃음꽃이 활짝 피여있었다. 그리고 군에 일떠선 일용품, 피복, 식료, 기계, 건재, 제약, 종이공업 등 지방산업공장들과 새로 건설된 상원군민발전소와 상원탄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의 일부

광은 지방공업발전과 군내인민들의 생활을 더욱 추켜세우고있었다. 그 덕에 주민들은 전기난방화된 살림집에서 살게 되었고 곳곳의 지방산업공장들은 군의 풍부한 원료들을 리용하여 식료품, 종이, 약품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품들을 생산하고있었다.

우리는 그의 자기 고향에 대한 사랑을 가슴흐뭇하게 들으며 어디 가나 흔한 석회석을 원료로 하는 현대적인 대규모세멘트 생산기지인 상원세멘트련합기업소에도 들러보았다. 소성로를 거쳐 쏟아지는 질 좋은 세멘트는 이 고장의 이름을 더욱 유명하게 해줄만도 하였다.

그는 이 모든 전변은 다름아닌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지금으로부터 60여년전 상원땅을 처음으로 찾아주신 때부터 마련되기 시작하였다고, 상원군에 오는 사람들만 아니라 미국에 살고있는 삼촌에게도 자기 고향에 대하여 늘 자랑하군 한다는것이

였다. 자기가 사는 고향에 대한 남다른 사랑을 안고 사는 사람, 우리에게는 그의 모습이 무척 돋보였다.

그만이 아닌 군의 가는 곳마다에서 우리는 이곳 사람들의 공지에 넘친 모습을 볼수 있었다.

우리는 나라의 관심속에 더욱 훌륭히 변모되어가는 상원군의 모습, 자기 힘을 자각하고 자기 손으로 자기 고향을 꾸려가는 상원사람들의 모습에서 더욱 훌륭히 변모될 상원군의 래일을 그려보았다.

글 본사기자 강 국
사진 본사기자 박창복



상원사슴목장에서



상원군 미래원의 컴퓨터교육실에서





15 Falcon ct, Hamilton, Nj 08690, U.S.A. 최상선삼촌 앞

고향은 멀리 있어도

안녕하십니까.

평양에서 삼촌을 만나보온지도 벌써 10년이 되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지만 삼촌에 대한 그리움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간절해집니다. 더우기 해마다 설을 맞으며 삼촌이 우리에게 보내는 편지를 받을 때면 이역땅 멀리에 계시는 삼촌이 더더욱 그리워집니다.

집에서는 모두 건강합니까.

우리 집에서는 다 잘 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아흔고개를 찍 넘겼지만 여전히 정정한 몸으로 편히 지내고 있습니다. 조선인민군 군관인 아들 명선이와 군에 있는 소복장에서 사무원으로 일하는 딸 명희를 비롯하여 집안식구들 모두가 잘 있습니다.



삼촌, 삼촌이 조국에 오셨을 때 보았던 어린 진아가 생각나십니까. 삼촌이 고와하던 명희의 둘째딸인 그 손녀애가 이제는 고급중학교 1학년 생이 되었고 군적인 녀학생들의 축구경기에서 한몫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집안에는 기쁜 일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명희의 맏딸인 현아가 올해 4월 평양에 있는 김형직사범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정말이지 자식들이 훌륭한 인민군대의 지휘성원으로, 일군으로 성장하고 손자, 손녀들이 끝까지 자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생각이 많

아집니다. 삼촌도 아시다싶이 조국에서는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하는 인민대중을 위하여 모든것이 복무하고 있습니다. 조국에는 전반적 12년제의 무교육제와 전반적무상치료제뿐 아니라 우리가 알게 모르게 받고 누리는 인민적시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 품속에서 손자, 손녀애들은 세금ियो, 학비요 하는 말조차 모르고 행복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저는 조국은 우리에게 있어 삶의 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조국이 생명처럼 귀중하기에 지난 세기 미국이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전쟁을 일으켰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총을 잡고 그토록 용감히 싸운것이 아니겠습니까. 당시 남조선에서 살던 저의 아버지도 용약 전선에 달려나가 피흘리며 싸웠습니다. 오늘은 그 조국을 후대들이 지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길에 나서고 있습니다.

삼촌, 지금 삼촌의 고향인 남조선 서울의 룡산땅에는 여전히 미제침략군이 틀고앉아 주인행세를 하고 있습니다. 삼촌이 나서자란 고향의 모든것이 미제의 군화발밑에 짓밟히고 있습니다.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가슴속에 새겨진 고향에 대한 추억, 고향에 대한 사랑은 그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지금도 저는 삼촌이 조국에 오셨을 때 언제한번 고향을 잊은적 없다고 하신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루빨리 남조선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조국을 통일해야 합니다.

비록 삼촌의 고향은 멀리 있어도 그 고향땅을 위해, 조국을 위해 우리모두 통일애국의 길에 적극 떨쳐나섭시다. 저도 조국을 위한 좋은 일을 많이 찾아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만날 그날을 그리며 이만 쓰겠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황해북도 상원군 을 62인민반
조가 최강국 올림

수 기

젊어지는 보약

내 나이 지금 78살이다.

인생의 황혼기에 이른 내가 정력에 넘쳐 일하고있는것을 보며 사람들은 무슨 보약을 쓰는것이 아닌가고 묻곤 한다.

그럴 때면 나는 웃으며 젊어지는 보약을 먹는다고 말해준다.

젊어지는 보약,

그렇다.

나는 항시적으로 신선하고 깨끗한 이 땅의 공기를 매일 매 시각 들여마시는것처럼 젊어지는 보약을 먹고있다.

그것은 나에게 사랑을 주고 힘을 주고 활력을 주고있다.

지금도 생각하면 절로 눈시울이 뜨거워진다.

주체102(2013)년 8월 14일 77번째로 맞이하는 생일날에 나는 그렇게도 바라던 소원을 성취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나를 자신의 옆자리에 앉히시고 룡악산팀과 보통강팀사이의 남자축구경기를 보아주시었던 것이다. 그날 그이께서는 체육발전추세와 동향에 대하여 많이 물어주시고 나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시었으며 경기가 끝났을 때에는 빨리 완쾌되기 바라다고 힘과 용기를 안겨주시었다.

그러나 몸상태가 여의치 못하여 병원신세를 지고있던 그때 나는 그이께서 이미 전부터 체육성의 일군들을 부르시여 나의 병상태에 대하여 일일이 알아보시었다는것을 미처 알수가 없었다.

그이의 믿음과 사랑속에 나는 주체102(2013)년 12월부터

체육과학원 부원장의 직무도 맡게 되었다.

이제는 자신을 성 쌓고 남은 돌이라 생각하고있는 나이에 체육과학원 부원장이라는 무거운 직무를 두어깨에 걸머지고보나 나의 심장은 세차게 고동치었고 온몸은 청춘의 활력으로 되살아났다. 나라의 축구를 과학적로 대우에 올려세우기 위한 자료수집으로 날과 달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른다.

그러던 나는 심한 부정맥으로 평양의 이름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다. 의사, 간호원들이 나를 정성껏 치료해주고 간호해주었으며 잠시도 나의 머리맡을 떠나지 않았다.

많은 축구애호가들이 축구경기해설을 잘하는 축구박사의 목소리를 듣고싶다며 어서 빨리 일어나라고 전화를 걸어오고 하루가 멀다하게 면회도 왔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몸판리에 적극적이여야 한다면 내가 사는 중구역 련화2동 52인민반의 사람들과 조선년로자보호련맹 중앙위원회 일군들을 비롯하여 이름모를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다.

조국의 고마운 사랑과 인민적시책, 인민적보건제도는 나를 다시금 일으켜세웠다.

이것이야말로 내가 만들수도 구할수도 없는 삶의 보약이 아니겠는가.

하지만 이것은 나에게만 차례지는것이 아니다. 이 나라의 년로보장자들과 나와 같은 나이에 현직에서 일하는 사람들모두에게 골고루 차례지고있



는것이다.

년로보장나이가 되었어도 자기의 희망과 능력에 따라 과학연구부문과 교육부문을 비롯한 여러 부문에서 젊은 시절의 열정과 기백에 넘쳐 강성국가건설에 있는 지혜와 정열을 다 바쳐가고있는 사람들.

매일매일 아침저녁은 물론 명절날과 휴식일, 국제로인의 날에 유원지, 공원에서 다채로운 체육유희오락경기와 웃음판을 펼쳐놓는 년로보장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 전사회적인 관심과 보살핌속에 혁명선배로, 사회와 가정의 웃사람으로 존경과 사랑을 받으며 인생의 로년기에도 값높은 삶을 꽃피워가고있는 저 사람들은 얼마나 행복한가고.

나는 이 고마운 제도를 위해, 나라의 체육강국건설을 위해 있는 힘과 지혜를 아낌없이 바쳐나가겠다.

체육과학원 부원장
교수 박사 리동규

민족적금지

조국에 자주 오지만 이렇게까지 변모되리라고는 생각지 못하였다. 창전거리, 인민극장, 룡라인민유원지, 류경원, 문수물놀이장...

그 모든것은 조국이 강성국가건설에서 많은 발전을 이룩하고있다는것을 알 수 있게 한다.

솔직히 말하여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제일 기쁠 때가 조국의 일이 잘되어나가는것을 볼 때이다.

지금까지 조국에서는 성과적인 인공지구위성제작과 발사를 비롯하여 여러가지 놀라운 성과로 우리들에게 참으로 커다란 민족적금지과 자부심을 안겨주었다.

인공지구위성 하나만 놓고보아도 경제가 발전되었다고 하는 나라들에서도 그 개발에 선뜻 나서지 못하는 최첨단 과학기술의 종합체이다. 설사 개발하였다 하더라도 남의 도움이나 지원에 의거하는 경우가 많고 운반수단도 다른 나라들에 의존하고있다고 한다.

바로 그러한것을 조국은 모두 자기의 힘으로 해냈다.

우리들은 해외에서 그 소식을 듣고 조국이 참으로 커다란 경제적잠재력을 가지고있다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른다.

그렇다. 조국땅에 이룩된 모든 성과들은 우리 조국이 강성국가로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것을 확신할수 있게 한다.

몸은 비록 조국과 멀리 떨어져있어도 조선민족된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통일애국사업에 적은 힘이나마 바치겠다.



중국 길림성 구대시 허명숙

마음에 드는 분수터

나는 평양에 처음으로 와본다.

평양이 아름답고 문명한 도시라는데 대하여는 이미 전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어도 이렇게 내가 직접 이곳에 와보니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훌륭하다.

고국방문기간 나는 평양의 거리들과 건축물들을 여러곳이나 돌아보았는데 특히 만수대예술극장앞에 있는 분수터가 나의 마음에 꼭 들었다.

지난 기간 나는 세계의 이름난 도시들을 수없이 다녀보아 견문이 넓다고 자부하여왔지만 만수대예술극장앞 분수터처럼 조형예술적으로도 훌륭하고 인민의 문화휴식장소로도 적절한 그런 장소를 보지 못하였다.

내가 만수대예술극장앞 분수터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니 만수대언덕과 만수대의사당 그리고 푸른 기와를 얹은 독특한 건축물인 인민대학습당과 함께 평양학생소년궁전, 평양제1백화점 등이 한손에 잡힐 듯 바라보이였다.

분수터는 물과 돌의 조화가 어울려 참으로 보기 좋았다.

그곳에는 높이와 형태가 서로 다른 분수들은 물론 조선의 무용명작을 반영한 대형조각도 있었으며 산중의 기암절벽을 옮겨다놓은 것과 같은 폭포터도 있었다.

평양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자유로이 휴식을 하고있었는데 그들은 만시름을 잊은듯 얼굴마다에 행복한 웃음을 담고있었다.

그들을 보는 순간 나에게 문득 안해와 함께 자식들을 데리고 여기에 꼭 다시 오고싶은 마음이 앞서는것이였다.

세상에는 유구한 력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도시들이 많다 하지만 평양은 그 어디에도 비길수 없는 독특한 매력을 가지고있었다.

평양의 그 어디에 가나 거리들이 깨끗하고 건축물들은 인민의 문화생활과 밀접히 련관되어있었다.

그리고 낮이나 저녁이나 거리로 오고가는 사람들속에서 술에 만취되었거나 옷차림이 어지럽고 떠들썩하게 소리를 치며 다니어 거리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사람들이 한명도 없었다.

나는 평양의 이 분수터앞에서 고국의 문명수준이 얼마만 한 높이에 있는가를 잘 알게 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시 김 모이씨

독자들은 지금도 지난 4월 조국에서 진행된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을 기억하고있을것이다. 그때 제일조선인예술단이 공연하던 평양대극장에서는 한 연주가의 장새납독주 《통일돈돌라리》가 울리는 가운데 관중의 흥겨운 촉판이 펼쳐졌다. 장새납의 연주로 대번에 관중을 매혹시킨 그는 총련 금강산가

하던 조국의 한 학생의 모습에 마음이 끌려들었다. 어려서부터 남달리 음악을 좋아하고 학구열이 높았던 그에게 장새납이 주는 여운은 참으로 컸다.

그후 그는 가나가와조선중고급학교에 다니던 시절 자기 고장에 순회공연을 오는 금강산가극단의 공연을 자주 보면서 민족목관악기인 장새납에 대한 애착을 더욱 굳게 가지게 되었다. 민족차별책동이 우심한 이역땅에서 우리의 노래와

는 민요적인 굴림기교들과 끌기, 룡음, 끌소리 등을 손색없이 형상하느라 휴식일이 따로없이 훈련하고 또 훈련하였다. 뿐만아니라 동포들의 민족적흥취를 보다 돈구기 위해 장새납연주와 민족적인 룡동을 결합시키느라 거울앞에서 동작을 연습해본것이 그 얼마인지 모른다. 태양절(4월 15일)과 광명성절(2월 16일)을 맞으며 제일조선인예술단의 한 성원으로 조국을 방문하게 될 때에는 국립민족예술단의 무용가들과 장새납연주

장새납소리에 마음이 끌려



리문기

춤, 우리의 민족악기로 동포사회에 민족적향취가 넘치게 하는 가극단 성원들이 무척 돋보였다. 앞으로 훌륭한 민족악기연주가가 될 꿈이 그의 마음속에 봄물

가들을 찾아가 걸린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곤 하였다.

10여년간 이어진 그의 이러한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일본각지에서 사는 동포들은 금강산가극단의 순회공연이 진행될 때면 의례히 그의 장새납독주를 기다렸고 그의 연주가 끝나면 재청을 요구하곤 하였다.

그 소리 한번 울리면 무대를 들썩이게 하고 동포들의 가슴가슴을 민족의 향기로 후련하게 해주는 장새납소리, 오늘도 그는 그 소리를 높이 울리며 동포들을 찾아 순회공연의 길을 걷고있다.

본사기자 조선일

극단 연주가 리문기동포였다.

그가 장새납연주자로 성장하게 된데는 사연이 있다.

그가 열세살나던 해였다. 당시 요꼬하마조선초급학교 6학년에서 공부하던 그는 학교의 추천으로 조국에서 진행되는 학생소년들의 설맞이 공연에 참가하게 되었다. 공연의 나날 그는 음식이 독특하고 음량과 표현력이 풍부한 장새납으로 멋지게 연주

마냥 부풀어올랐다.

마침내 조선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금강산가극단의 장새납연주가가 된 그는 자기의 기량을 높이기 위해 이악하게 노력하였다. 민족음악의 진수를 파악하기 위해 우리 나라 민요와 민족악기에 관한 도서들을 구입하여 열심히 탐독하였다. 그리고 민족악기로서 장새납의 성격을 잘 살리기 위해 장새납으로 하



만경대고향집을 방문하였다.

고국방문

통일을 그리며

- 재로동포대표단 -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에서

통일은 북과 남, 해외에 살고있는 온 겨레의 한결 같은 념원이다. 사진속의 이들이 바로 지난 7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서거 20돐에 즈음하여 고국을 방문한 로씨야련방 연해변강 빠르찌잔스크시 조선민족

문화자치회 성원들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탄생하시어 어린시절을 보내신 만경대고향집을 깊은 감동속에 방문한 그들은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아주시고 조국에 개선하신 수령님의 업적을 전하는 개선문과 조국해

미제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를 돌아보는 동포들



방전쟁승리기념관, 국가선물관 등을 돌아보며 고국에 대하여 더 잘 알게 되었다.

그들은 미제에 의하여 강요된 민족분렬의 아픔을 안으시고 통일의 그날을 기어이 이룩하시기 위해 생애의 마지막순간까지 크나큰 심혈을 기울이신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의 업적을 깊이 새겨안으며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도 돌아보았다.



개선문에서

애국사업에 자기들의 적은 힘이나마 다 바칠 결의를 다지였다.

글 본사기자 연 옥 사진 본사기자 김영호



모란봉에 올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을 돌아보았다.

그들은 이렇게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에 와보니 김일성주석님께서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얼마나 크나큰 심혈과 로고를 기울이시였는가를 더 잘 알게 되었다, 다음번 고국에 올 때에는 우리도 통일성업에 이바지할 마음으로 기념돌을 기증하겠다고 말하였다.

모란봉에 오른 그들은 청류정에서 아름다운 평양의 전경을 부감하였다.

절세위인들의 손길 아래 평양이 이토록 훌륭하게 전변되어 그 모습을 자랑하고있다고 하면서 그들은 민족의 번영을 위해 통일





만경대고향집

을 함께 모시었습니다. 기념비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중심으로 좌우에 대군상 《항일혁명투쟁탑》, 《사회주의혁명 및 사회주의건설탑》이 있으며 대형돌쪽무이벽화 《백두산》이 있습니다.

평양시 중심에서 서남쪽으로 12km정도 떨어진 곳에는 만경대고향집이 있습니다.

만가지 경치를 다 안고있는 명승이라는데로부터 이름지어진 만경대는 주체1(1912)년 4월 15일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탄생하신 곳입니다. 증조할아버님이신 김응우선생님으로부터 4대가

살아온 만경대고향집에는 만경대일가분들께서 쓰시던 유물들이 원상그대로 소중한 보존되어있습니다. 고향집주변에는 아름다운 만경봉이 솟아있고 위대한 수령님 일가분들의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만경대혁명사적관과 그분들의 묘소가 있습니다.

평양을 가로질러 흐르는 대동강기슭에는 주체사상탑이 자리잡고있습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사상리론적업적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주체71(1982)년 4월에 건립된 주체사상탑은 높이가 170m(탑신 150m, 봉화 20m)로서 백색화강석으로 쌓아올렸는데 세계적으로 알려진 석탑들가운데서 가장 높은 탑입니다. 탑에는 평양시의 아름다운 전경을 한눈에 부감할수 있는 전망대가 있으며 탑의 뒤편에는 여러 나라 국가 및 정부수반들과 인



개신문

사들, 주체사상신봉자들이 기증한 기념판돌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평양시에 대한 참관일정에는 개신문도 있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을 승리로 조직령도하시어 일체의 군사적강점으로부러 조국을 해방하신것을 기념하여 주체71(1982)년 4월에 건립되었습니다. 개신문의 높이는 60m, 너비는 52. 5m입니다. 4개의 기둥에는 부각상들이 있고 수령님께서 혁명의 길에 나서신 년대인 《1925》와 조국해방을 이룩하고 조국에 개신하신 년대인 《1945》 그리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의 가사가 새겨져 있습니다.

평양-개성고속도로가 시작되는 곳에 두명의 조선녀성이 마주서있는 탑이 바로 조국통일3대헌장 기념탑입니다. 조국통일3대헌장마크와 그것을 힘있게 받들어올리며 마주선 조선옷차림의 두 녀인의 환희에 넘친 모습, 힘있고 우아하게 뻗어내린 치마폭의 선들은 기어이 통일의 문을 열어나가려는 민족의 역센 기상과 의지를 생동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탑신의 내부에 형성된 4칸의 기념돌전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

시장에는 남조선인민들과 해외동포들, 세계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과 진보적인사들이 기증한 진귀한 돌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관광은 풍치아름다운 보통강기슭의 혁신거리와 영웅거리가 교차되는 곳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으로 이어집니다. 기념관은 주체42(1953)년 8월에 평양시 중구역 해방산동에 세워졌다가 주체63(1974)년 4월 평양시 서성구역에 다시 건설되었으며 경애하는 김정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정력적인 령도밑에 주체102(2013)년 7월 대 기념비적건축물로 훌륭히 건설되어 개관되었습니다. 《승리》상을 축으로 본관과 대전해방작전전경화관, 공훈무기전시장과 로획무기전시장, 교양마당으로 이루어진 기념관에 있는 진렬실들을 돌아보노라면 가려했던 전투마당이 눈앞에 그대로 어려오는듯 합니다.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탑과 기념관을 감돌아 흐르는 보통강에는 주체57(1968)년에 조선인민군 해군에 의하여 나포된 미제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전시되어있습니다.

평양시에 대한 참관일정에는 조선중앙력사박물관도 있습니다. 주체34(1945)년 12월에 개관

조선의 관광지들을 (1)

평양지구



된 조선중앙력사박물관은 김일성광장옆에 자리잡고 있으며 원시시기로부터 근대시기에 이르기까지 조선민족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보여주는 10만여점에 달하는 귀중한 력사유물들과 사료들이 전시되어있습니다. 박물관은 지방의 도급력사박물관들을 학술적으로 지도하고있으며 국제박물관기구와 다른 나라 박물관들과의 학술교류와 협조를 활발히 벌리고있습니다.

김일성광장 주석단쪽을 바라보노라면 웅장한 조선식건축물인 인민대학습당이 눈앞에 안겨오는데 학습당은 주체71(1982)년 4월에 개관되었습니다.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1년 9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건설된 인민대학습당은 연건축면적이 10만여㎡에 달합니다. 인민대학습당에는 수천만권의 장서능력을 가진 서고와 20여개의 큰 열람실들, 10여개의 강의실, 자료통보실, 문답실, 외국어강의실, 800석종합강의실, 음악감상실을 비롯한 600여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매일 평균 1만여명의 독자들이 찾아와 개별학습도 하고 강의도 받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새로 건설된 문수물놀이장은 주체102(2013)년 10월에 준공되었습니다. 부지면적이 12만 5 000㎡에 달하는 문수물놀이장은 사계절 물놀이를 할수 있는 실내물놀이장과 야외물놀이장, 야외체육장과 실내체육관을 비롯하여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시설들로 훌륭히 꾸려져있습니다. 조선서해의 바다물이 출렁이는 바다물수조며 맑은 물이 굽이쳐흐르는 수백m의 길이를 가진 수조를 비롯한 특색있는 여러 수조들과 장쾌한 인공폭포, 명산들인 묘향산과 금강산의 기암절벽들을 그대로 형상한 인공바위산까지 있어 물놀이장의 풍경은 더욱 이채롭습니다. 배구와 룡구, 바드민턴, 벼랑타기, 탄력운동 등 여러가지 종목의 체육활동에 편리하게 꾸려진 실내체육관과 야외체육장을 비롯하여 종합적이며 다

기능화된 문수물놀이장에서는 언제나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는 손님들의 기쁨과 랑만이 차넘치고있습니다.

미림승마구락부는 주체102(2013)년 10월에 준공된 대중승마봉사기지입니다. 62만 7 000여㎡에 달하는 방대한 면적의 부지에 건설된 승마구락부에는 훌륭한 승마주로와 함께 승마훈련장들, 승마지식보급실과 피로회복원, 수의병원과 종축연구소를 비롯하여 승마운동과 교육에 필요한 모든 조건과 환경이 훌륭히 갖추어져있습니다. 1 750m의 토사주로와 1 850m의 잔디주로로 타원형을 이룬 승마주로들은 독특하게 건설된 건물들을 옆에 끼고 시원스레 뻗어있으며 실내승마훈련장과 청량음료점, 승마지식보급실, 피로회복원 등 여러가지 봉사시설들이 특색있게 훌륭히 꾸려져있습니다.

대성산기슭에 자리잡고있는 평양민속공원은 200여정보의 부지를 차지하고있습니다. 주체101(2012)년 9월에 준공된 평양민속공원은 력사유적전시구, 현대구, 력사종합교양구, 민속촌구, 민속놀이구, 안학궁터 등 6개의 구획으로 나뉘어져있습니다.

발해봉건국가의 궁전에는 조선민속박물관이 자리잡고있으며 이곳에서는 흥미있는 해설과 생동한 력사유물들을 통하여 조선의 민속전통을 잘 알수 있습니다. 옛 살림집들에서는 해당 시기의 민속전통을 실감있게 보여주고있으며 여러가지 민족음식 봉사도 하고있습니다.

이밖에도 만경대학생소년궁전과 조선미술박물관, 중앙동물원과 단군릉, 룡라인민유원지와 모란봉극장, 평양지하철도 등에서 평양의 아름다운 산천경개와 유구한 력사, 조선인민의 활력있는 생활모습을 보게 될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조선에서만 볼수 있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을 통하여 사회주의조선의 발전모습의 단면을 볼수 있을것입니다.

글 본사기자 윤영일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폈다

금수산태양궁전지구에 수종이 좋은 갖가지 나무들이 우거지고 백화만발하는 원림지대가 펼쳐져있다.

이것은 지구상 방방곡곡의 온갖 새들이 날아와 보금자리를 펼수 있는 매우 유리한 생태환경을 조성해주고있다.

태양의 성지로 훌륭히 꾸려진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폈다.

국가과학원 동물학연구소에서 관찰한데 의하면 남방기원계통의 동양구형조류인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 나무들에 둥지를 틀고 몇년째 서식하고있으며 현재 그 마리수가 1 600마리이상으로 늘어났다.

중백로



다같이 황새-왜가리목 왜가리과에 속해있으면서도 백로속과 밤물까마귀속으로 분류되는 중백로 Egretta intermedia(Wagler, 1829)와 밤물까마귀 Nycticorax nycticorax(Linnaeus, 1758)는 더운 지방의 습지대에 퍼져사는 새들이다.

일명 《검은다리백로》라고 하는 중백로는 몸길이가 58~68cm, 몸질량은 500~550g으로서 몸집은 백로류중에서 중간크기이다. 등장식깃이 매우 길어 꼬리처럼 늘어졌으며 몸은 흰색이고 부리와 다리, 발가락은 검은색이다. 중백로는 모양과 자태, 색깔과 우짖는 소리, 날음활동으로 수역과 들판의 자연풍치를 돋구어주며 세계적으로 그 마리수가 줄어 들고있어 적극 보호되고있다.

주로 밤에 활동하는 밤물까마귀는 몸길이가 58~60cm이고 몸질량은 수컷이 550g, 암컷이 440g정도이다. 목이 짧고 굵으며 뒤통수에 두개의 장식깃이 있는 밤물까마귀의 정수리와 등,

뒤목은 광택이 나는 검푸른색이며 꼬리, 날개는 재색이고 댕기깃, 이마, 뺨, 앞목, 배는 흰색이다. 부리는 누런검은색이고 다리는 노란색이다.

오랜 조류학자인 박래번은 《지난 시기 남방의 더운 습지대에서 번식하던 중백로와 밤물까마귀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보금자리를 펴고 집단번식을 시작한것은 조선조류상을 더욱 풍부히 하여주는 이채로운 현상이다.》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밤물까마귀



금수산태양궁전 수목원에 남방기원계통의 조류가 보금자리를 폈다.



고조선의 정치구조에 대하여 (2)

- 후조선 -

후조선은 전조선(단군조선)을 계승하여 B. C. 15세기 중엽부터 B. C. 194년까지 존재한 고대 국가이다.

후조선시기 피착취노예대중에 대한 노예소유자 계급의 지배와 예속을 실현하기 위한 통치제도는 전조선시기에 비해 더욱 발전하였다.

후조선은 전조선과 마찬가지로 노예소유자국가로서 그 통치제도는 국왕을 우두머리로 하는 관료 집단과 중앙과 지방통치체계 그리고 법과 군대를 비롯한 통치수단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국왕은 노예소유자계급의 대표자로서 자기가 직접 관할하는 중앙관료기구와 전국에 세워진 지방통치기구에 의거하여 국가의 전반적인 대내외 문제처리에서 가장 큰 전제권력을 행사한 최고통치자였다.

후조선의 통치제도에서 중요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중앙관료기구는 전조선의것을 거의 그대로 계승하여오다가 말기에 이르러 관직명, 직무 등에서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변화를 보면 우선 임금의 통치를 직접 보좌하는 최고위급의 측근관료로서 비왕이 있었다. 비왕은 여러 대신급관료들의 우에 서서 그들을 총괄하는 관리였다. 그리고 임금과 직접 나라의 중요문제를 논의하는 중앙의 최고위관료들로 상이라고 불리우는 여러명의 대신급관료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일정한 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지고 해당 지역(작은 후국)을 통치하였다. 또한 군사에 관한 일은 전신나 평시를 막론하고 고위급의 무관인 장군에 의해 주관되었다. 상 다음가는 중앙관료인 대부는 나라의 중요정사들과 관련된 의견을 임금에게 직접 제기할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밖에도 후조선에서는 노예소유자계급의 통치를 원만히 실현하기 위하여 그 말기에 대신급의 관직명에 다시 박사와 같은 여러 등급의 관료집단을 내오기도 하였다.

통치체계에는 중앙통치체계로서 전조선시기부

터 내려오던 소수 노예소유자계급들의 합의기구와 지방통치체계로서 후국제와 부수도제도가 있었다. 통치계급은 바로 이에 의거하여 저들의 특권적지위와 권리를 옹호하고 나라의 모든 지역과 인민들에 대한 지배와 예속을 실현하였다.

통치제도에서 특징적인것은 노예소유자계급의 리익을 옹호하는 성문법을 제정완성하여 저들의 통치실현에 리용한것이다.

통치계급은 국가형성 초기에 벌써 그 이전시기의 관습법(불문법)을 저들의 리익에 맞게 수정보충하고 더욱 정비하여 《범금8조》라는 보다 정연한 성문법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의하여 노예소유자계급의 특권적지위는 더욱 강화되고 노예와 평민들의 무권리는 법적으로 고착되었다.

《범금8조》의 내용중 현재까지 전해져오는것은 3개의 조항뿐인데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사람을 죽인 자는 즉시 사형에 처한다.
- ② 남에게 부상을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을 야 한다.
- ③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남자의 경우에는 도적을 맞힌 자의 노로 만들고 녀자의 경우에는 비로 만든다. 만일 훔친 자가 죄를 벗으려면 50만돈을 내야 한다.

《범금8조》는 형법적이면서도 민법적인 요소를 많이 가지고있는 노예소유자사회의 발전된 성문법으로서 노예주들의 리익을 옹호하고 그들의 통치를 실현하는데 적극 복무하였다.

후조선의 통치계급은 계급적신분관계에 바탕을 둔 상비적인 군대를 편성하고 그것을 리용하여 노예제도를 유지강화하였다.

이처럼 후조선은 전조선의 통치제도를 계승발전시킨 정연한 통치기구와 체계, 수단들을 갖추고 있었으며 이것은 그후 만조선의 통치제도수립과 정비강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사회과학원 연구사 리철

상 식

건강에 좋은 소금료법

<p>소금은 음식의 간을 맞추는데 쓸뿐 아니라 건강을 보장하는데도 쓰인다. 약천에 소금을 써서 몸을 마찰하면 물질대사가 촉진되고 피순환이 잘된다. 소금과 닭알의 흰자위를 섞어서 열물에 바르면 여드름이 없어진다.</p>	<p>기름에 담은 소금을 천에 써서 겨드랑이를 문지르면 겨드랑이에서 나는 냄새를 없앨수 있다. 더운 소금물에 발을 잠그면 나쁜 냄새가 없어지고 발에서 나는 냄새도 없어진다.</p>
---------------------------------------------------------------------------------------------------------------------------	------------------------------------------------------------------------------------------------------

사 화

애국명장을 키운 녀인

고려시기의 애국명장 김숙홍은 유복자로 태어나 어머니 리씨의 손에서 자랐다.

몸과 의지가 약한데다 공부에도 취미를 붙이지 못한 아들을 키우는 어머니의 머리속에는 남편이 남긴 유언이 어느 하루도 떠날줄 몰랐다.

《나는 저세상으로 가나 요행 당신의 몸에 혈육이 있다니 혹시 사내일 때는 ... 내가 무사로서 나라위해 아무 공적도 남기지 못하고 죽는 원한을 풀어주도록 키워주오.

우리 가문이 조상전래의 무사이니 자식이 훌륭한 장수가 되고 나라의 기둥이 되도록 잘 키워주면 내 이제 눈을 감아도 원이 없겠소.》

리씨는 아들을 장수로 키우리라 결심하였다.

그러던 동지섣달 어느날 서당에서 돌아오던 숙홍이 엉엉 울면서 방에 들어섰다. 알고보니 맏 째 추위에 못견디어 울음보를 터뜨린것이다.

리씨는 우는 아들을 데려다 우물가에 내다세웠다.

영문을 몰라 자기를 쳐다보는 아들에게 리씨는 크지 않은 목소리로 《어머니가 덤계 해줄테니 옷을 벗어라.》하고는 드레박을 우물안에 내리드리웠다.

그때에야 짐작이 갔던 아들은 놀라면서 어머니의 손목을 잡고 말하였다.

《엄마, 다시는 추위도 안 올게 내 옷 벗기지 말어.》

리씨는 아들이 잡은 손을 떼여놓으면서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그럼 울음을 뚝 그쳐라. 어

머니말을 듣겠느냐?》 그러자 아들은 울음을 그치고 《응.》하고 대답하였다.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나더러 너를 훌륭한 나라의 장수로 키우라고 유언하셨다. 그런데 요만한 추위에 사내자식이라는게 울음보를 터치니 땅속에 묻힌 네 아버지가 아시면 네 엄마를 얼마나 원망하겠느냐. 그 래 앞으로 어머니의 말을 잘 들겠느냐?》

이런 일이 있는 다음부터 리씨는 자식에 대한 교양도 더 엄하게 하고 숙홍 또한 어머니의 훈시를 받아들였다.

리씨는 아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훈련도 시켰다. 훈련과정에서 아들의 입에서 《출다》, 《답다》, 《아프다》와 같은 약한 소리가 절대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그러면서 늘 아들에게 《아버지 유언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런것쯤은 참을줄 알아야 용맹한 장수로 된다.》고 격려하곤 하였다.

그러면서도 아들이 잠을 잘 때면 머리맡에 앉아 이불깃을 꼭꼭 눌러주며 아버지없이 자라는 자식이 불쌍하여 눈물로 얼굴을 적시곤 하였다. 어쩌다 아들이 병이 나면 엄두설한 야밤 삼경에도 불원천리 약을 구해다 먹이고 완쾌되는것을 보고야마는 그였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고 리씨의 자식에 대한 이러한 지성이 있어 숙홍은 무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그리하여 당시 국방상 중요한 요충지였던 북쪽국경지대의 별장으로 임명되었다.

김숙홍은 중임을 맡은 장수였

으나 고향에 두고온 어머니를 생각하며 늘 그리워하곤 하였다.

어느날 그는 어머니생일과 아버지제사날을 생각하여 말미를 얻어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반가와할줄 알았던 어머니는 엄한 기색으로 아들을 굶어보며 말하였다.

《네가 아직 철이 채 들지 못한것 같구나.》

숙홍은 어머니의 말뜻에 가슴이 안가 묵묵히 서서 어머니의 다음말을 기다리었다.

《너야 국경경비를 맡은 나라의 장수가 아니냐. 더구나 외적들이 언제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네가 이렇게 태평한 마음으로 장수노릇을 하다가 나라일을 그르칠가 두렵구나. 나라일을 잘못 만들어놓고서야 너나 나나 무슨 면목으로 아버지의 령혼을 대하겠느냐.》

어머니의 얼굴에서는 두줄기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네가 진정 내 아들노릇을 할테면 제발 훌륭한 장수가 되어다오. 네가 훌륭한 장수만 된다면야 내 마음도 넓도 늘 네곁에 함께 있겠는데 무얼 어린애처럼 어미를 보고싶어 찾아다니 다더냐!》

숙홍은 어머니의 간곡한 훈시에 충격을 받고 그날로 다시 군영으로 돌아갔다.

그후 김숙홍은 외적이 침범할 때마다 능숙한 지휘와 무쌍한 용맹으로 나라의 국경을 믿음직하게 지켰다.

고려시기의 애국명장 김숙홍, 그 이름은 그를 키운 어머니 리씨 부인과 떼어놓고 생각할수 없다.

* * *

병풍속의 호랑이

옛날 어느 고을에 심술이 몹시 사나운 군수가 새로 부임 되어왔다. 그래서 소와 돼지를 잡고 기생을 불러들여 큰 잔치를 차리었다.

이날 새로 온 군수는 백성들 가운데 글있고 총명하다고 알려진 사람들을 죄다 부르도록 하였다. 이것은 그가 어느 고을에나 새로 부임되기만 하면 먼저 글있고 지혜있는 사람들부터 놀리놓아야 민란을 막을 수 있다는 생활체험에서 온 것이었다.

그런데 글있고 지혜있다는 첫 사람으로 불러들인 것이 아직 어머니치마폭에나 묻어돌아갈 어린 소년이였다.

너무도 어이가 없어 군수는 라졸들에게 《에끼 이놈들, 누굴 놀리느냐. 저 코흘리겄 당장 끌어내지 못할가.》 하고 호통을 쳤다.

그런데도 라졸들은 들은동만 등 덩뎁히 서있기만 하였다.

군수는 성이 상투끝까지 올라 불그락푸르락하였다.

《저 애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그 지혜가 어른과 비길바 아니옵니다. 만약 량반의 가문에서 태어났더라면 장차 커서 한개 고을정도는 물론 천하도 다스릴수 있는 애인줄 아뢰오.》

이렇게 한 라졸이 말하였다.

《뭐 천하를 다스려?》
《그런줄로 아뢰오.》

《뉘앞이라고 감히 허풍을 치는거냐. 좋다. 그럼 내가 이제 저 애와 내기를 해서 애너석이 지면 너희들은 거짓말을 해서 나를 속인 죄로 목을 베여도 무방할테지?!》

그러자 소년이 군수앞으로

한발 나서며 《네, 내 목을 베여도 무방합니다.》라고 하였다.

이렇게 되자 군수는 성이 더 차올랐다.

군수는 하인을 시켜 호랑이를 그린 병풍과 바줄을 가져다 놓고 소년에게 말하였다.

《이 바줄로 저 병풍속에 있는 호랑이의 목을 매어 끌어내라.》

《네, 군수님 분부대로 하겠나이다.》

소년은 곧 바줄을 집어 들고 대문밖으로 뛰어나가며 《군수님, 제가 이 대문밖에서 지키고있을터이니 군수님이 몽둥이로 호랑이영뎡이를 쳐서 대문밖으로 냅다 몰아주시와요. 그러면 제가 이 바줄로 목을 매어 끌고 들어가겠나이다.》라고 하였다.

군수는 땅이 꺼져라 발을 탕탕 구르며 《에끼 얼빠진 녀석, 몽둥이로 아무리 친들 어찌 그림속의 호랑이가 뛰어나올수 있단 말이고.》라고 버럭 소리를 쳤다.

소년은 바줄을 던지고 깔깔 웃으며 《아무리 쳐도 움직이지 못하는 그림속의 호랑이를 군수님은 어찌 바줄로 매라 하오이까. 못할것을 하라고 강다짐으로 호령하는 사람이야말로 얼빠진자인줄 아오이다.》라고 말하였다.

라졸들은 모두 얼굴을 돌리고 키득거렸다.

이렇게 되자 군수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가버렸다. 그후 그는 글있고 지혜있는 사람들을 부르라는 말을 다시는 못했다고 한다.

* * *



민족의 향기

독특한 우메기를 만들어봅시다

모든것이 무르익는 풍요한 가을이 왔습니다. 여름내 찜찜하던 더위를 가져주는 시원한 가을바람을 맞느라니 문득 지난해 가을 개성을 찾았을 때 맛보았던 음식이 떠오릅니다.

입안에서 슬슬 녹아넘어가 언제 한그릇을 없앴는지 모를 지경이던 음식, 그것이 바로 우메기입니다.

그러면 우메기란 과연 어떤 음식이겠습니까.

우메기는 개성지방의 특산음식인 떡의 한가지입니다.

가을은 여름내 더위로 하여 상한 몸을 추세우기 아주 좋은 계절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선여성들은 가을에 몸을 든든히 보양하면 겨울에 추위도 덜 타

고 감기와 같은 기타 병에도 잘 걸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가족들의 건강에 특별한 관심을 돌려왔습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이 정성들여 만든 약밥이나 토끼곰, 우메기와 같은 보양음식은 가족들의 건강을 더한층 돈구어 주곤 합니다.

우메기라는 말은 고유한 우리 말입니다.

개성본토배기들의 말에 의하면 《우리 며느리가 만든 튀기》라는 뜻에서 처음에는 《우머기》라고 불리워지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우메기》로 굳어졌다고 합니다.

개성은 오래전부터 상업이 발전하여 인민들의 생활수준이 높았는데 남정들은 행상을 하

느라 집에 오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고싶은 남편이나 시아버지가 오래간만에 집에 오면 안해나 며느리들은 정성을 다하여 음식들을 만들어 대접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선민족음식가운데서도 개성지방의 음식은 그 어느것이 나 특식으로 꼽히는것이 많이가 봅니다.

찰떡, 송편, 설기, 우메기와 같은 떡들가운데서도 우메기는 그 맛이 독특하고 모양새가 특색있어 명절음식상에 주로 오르곤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독자여러분에게 개성의 특산음식 우메기를 만드는 방법에 대하여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메기는 찹쌀가루를 빻어 기름에 튀긴 다음 꿀에 재워 만든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우메기를 만들어봅시다.

우선 온 가족이 우메기를 충분히 맛볼수 있게 하려면 기본 음식감으로서 찹쌀 1 200g, 흰쌀 300g, 보조음식감으로는 기름(튀기용정제기름) 250g, 대추 60g, 꿀 400g, 소금 7. 5g을 준비합니다.

흰쌀과 찹쌀은 깨끗이 씻어 일고 물기를 짜운후 가루를 내어 골고루 섞습니다.

다음 끓는 소금물로 익반죽합니다. 대추는 씨를 뽑고 0. 5cm 정도로 네모나게 썩니다. 떡반죽물을 일정한 량씩 떼내어 직경 4cm정도되게 동그랗게 빻어 가운데는 눌러주고 옆에는 무늬를 놓은 다음 기름에서 튀겨냅니다. 떡이 노릇노릇하게 튀겨지면 꺼내어 가운데 대추를 박고 꿀에 잠그었다가 꺼내어 그릇에 보기좋게 담아냅니다.

이렇게 만들어놓은 우메기는 척 보면 노릇노릇한 색과 대추의 붉은색이 조화되고 또 입에 넣으면 말큰하면서도 단맛과 고소한 맛이 어울려 한개 또 한개 계속 먹고싶어집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크지 않은 떡이지만 2~3개만 먹으면 누구나 배부른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햇곡식이 나는 이 계절에 우메기와 같은 떡을 만들어 잡숴때면 누구나 어린시절 고향의 어머니가 품들여 마련해주던 음식들이 생각키워지게 될것입니다.

독자여러분, 어린시절 고향의 어머니가 만들어준 음식맛을 떠올리며 우메기가 식기전에 어서 맛보십시오.

글 및 사진 본사기자 방은심

우리 나라 금속공예발전에 대하여

우리 선조들은 일찍부터 철, 동, 금과 은을 비롯한 여러가지 금속들을 가지고 로동 도구와 무기, 치레거리와 중, 활자를 비롯한 많은 금속제품들을 만들어냈다.

선조들의 이러한 금속공예

기술은 태고적부터 발생발전하여왔다.

고조선이전시기인 원시사회 때부터 조상들은 청동으로 로동 도구와 무기, 치레거리 등을 만들어 사용하여 대동강류역에서 일찌기 청동기시대를 열어놓았다.

대동강류역에서의 청동기시대는 B. C. 4000년기 후반에 해당되며 조상들은 무른 구리대신에 90%의 동에 주석 10%를 섞어 구리보다 훨씬 굳은 청동을 얻어내는 자기식의 독특한 야금법을 창조하였다.

그것은 주체 83(1994)년에 발굴한 평안남도 성천군 룡산리순장 무덤에서 나온 여러개의 청동조각들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무덤은 고조선

성립이전시기의것으로서 그때 벌써 선조들이 금속을 사용하여 여러가지 로동 도구와 치레거리, 생활도구들을 만들어 생활에 리용하였다는것을 알 수 있게 한다.

고조선(B. C. 30세기초-B. C. 108년)시기와 삼국시기에 민족의 금속공예기술은 더욱 발전하였다.

그것은 고조선시기의 금속 가공기술과 문화적공통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유물인 비파형단검(청동단검)을 들 수 있다.

약기의 일종인 비파처럼 생겼다고 하여 비파형단검으로 불리우는 단검은 고대조선지역판도 즉 조선반도와 룡하, 송화강류역에서 나온것으로서 이웃나라의 다른 지역들에서는 볼수 없는것이다.

조형예술적으로 완전무결한 비파형단검은 고조선시기의 독특한 유물로서 고조선주민들의 높은 금속가공기술과 함께 당시 사람들의 미학적견해가 매우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은 고조선시기부터 청동기대신 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그것은 삼국시기에 이르러 더욱 발전하였다.

주체 98(2009)년에 룡강군 후산리 나무곽무덤(고조선시기)에서 발굴한 쇠단검과 쇠창, 쇠도끼 등의 무기류와 로동도구류는 고조선시기의 철주조 및 그 가공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있었다는것을 잘 알 수 있게 한다.

주체 83(1994)년 강원도 철령에서 발굴한 고구려(B. C. 277년-A. D. 668년)시기의 기마모형은 당시의 철주조기술을 보여 주고있다.

유적에서 발굴한 쇠말모형 54개와 청동말모형 4개, 쇠뿔, 쇠뿔, 쇠거부기, 쇠새모형 각각 1개 등은 고구려의 강대성과 문화의 발전면모를 보여준다.

삼국시기에 이어 민족의 첫 통일국가로 출현하였던 고려시기에 이르러 금속공예기술은 더욱 발전하여 세상에 그 이름을 떨치였다.

고려시기의 금속공예기술을 보여주는 대표적유물은 금속활자이다.

우리 민족은 11세기말-12세기초 세계에서 처음으로 금속활자를 발명한 슬기롭고 문명한 민족이다.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적으로 목판인쇄밖에 하지 못하였지만 우리 민족은 남들보다 200여년이나 앞서 금속활자를 발명하여 인쇄에 리용하였다.

그뿐만아니다. 묘향산과 금강산 등의 사찰들에 있는 금동불상들과 각이한 형태의 종들도 우리 민족의 독특한 야금법과 금속공예기술의 일단을 보여준다.

평양의 대동문루안에 달려있던 평양종(1726년)은 높이 3.1m, 아구리직경 1.6m에 무게가 12t 914kg 으로서 겉면에 금강력사(불교에서 이르는 힘장사)와 아름다운 구름, 물결무늬, 종의 래력을 쓴 글 등이 도드라지게 새겨져있고 종의 머리부위에는 청룡과 황룡의 조각이 기운차고 섬세하게 부각되어 선조들의 재능을 엿볼수 있게 한다.

이처럼 우리 민족은 금속공예 기술 하나를 통해서도 자기의 독특한 력사와 문화를 창조하여온 슬기롭고 재능있는 민족이다.

글 및 사진 분사기자 윤영일

평양종



조선속담 (잔인성)

-동냥도 안주고 자루 찢는다
무엇을 요구하는 사람에게 요구를 들어주는은 고사하고 도리어 해를 끼치거나 나무라기만 함을 이르던 말.

참고: ① 동냥은 아니 주고 쪽박만 깬다 ② 동냥은 못줄망정 쪽박이나 깨지 말라

-사를 굶은 승냥이가 달 보고 으르렁대다

포악한 자가 궁지에 빠져 함부로 날뛰는것을 비겨이르던 말.

-소리개 까치집 뺨맞듯
힘내기로 남의것을 무리하게 빼앗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자빠진 사람 꼭뒤차기
지난날에: 자빠진것도 불행인데 꼭뒤까지 찬다는 뜻으로 불행을 당한 사람에게 거듭하여 불행을 안겨주는 경우에 비겨이르던 말.

-화재난데 도적질
지난날에: 남이 위급하거나 불행한 일을 당하여 정신이 만데 가있는 틈을 타서 도적질을 한다는 뜻으로 남의 불행을 도와줄 대신 그것을 악용하여 자기의 리속을 채우는 악한짓을 욕으로 이르던 말.

-꽃밭에 불(을) 지른다
조폭하고 잔인한 행동을 하거나 행복한 생활을 훼방하는 행동을 하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울려는 아이 뺨친다
공연히 건드려서 일을 더 크게 만드는것을 비겨이르는 말.

참고: 굶어 부스럼



비파형단검



고구려시기의 기마모형들

금속활자



금강령



금동아미타3존불상



재능있는 녀류작가 강경애

황해도의 가난한 농민의 가정에서 태어난 강경애는 어린 시절부터 소설을 많이 읽고 이야기를 잘하여 사람들로 부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생활이 하도 구차하여 10살이 지나서야 겨우 소학교에 들어갔으며 18살때에 언니 남편의 도움을 받아 평양숭의녀 학교에 다니게 되었다.

이 시기에 그는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과 프롤레타리아문학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선진적인 사회정치서적과 진보적문학작품들을 읽으면서 사회적모순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동맹휴학에 참가한것으로 하여 출학당한후 강경애는 고향에 돌아와 학교시절부터 힘써오던 창작수업에 전력하였다.

그는 생활난에 쫓기여 1929년 중국 동북지방(간도)에 갔다가 다시 1931년말에 고향에 돌아왔으며 이듬해에 다시 중국 룡정으로 들어가 1939년까지 그곳에서 살면서 문학창작을 하였다.

이 시기 그는 장편소설 《인간문제》를 비롯하여 자서전적장편소설 《어머니와 딸》, 중편소설 《소금》, 단편소설 《채전》, 《해고》, 《축구전》 등 수많은 소설들과 수필을 썼다. 작품들에서 그는 착취받고 억압받는 근로인민의 생활과 지향을 깊은 동정과

애정을 담아 형상하였다.

그는 장편소설 《인간문제》에서 일제와 그 주구들의 억압과 착취를 반대하여 싸우는 노동자, 농민들의 생활에 대하여 묘사하였다. 가난과 무권리속에서 허덕이던 사람들이 점차 각성하여 과업투쟁의 앞장에 나서게 되는 과정을 진실하게 그리는 한편 이들과는 반대의 길을 걷는 신철의 형상을 통하여 부르주아인테리의 운명을 보여주었다. 또한 부정인물인 지주 정덕호와 그 집안을 통하여 패덕과 사기로 가득찬 지주들의 흡혈귀와 같은 생활을 폭로하였다. 그리고 주인공들의 생활을 일제와 지주, 자본가들과의 첨예한 갈등속에서 보여주면서 진정으로 인간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사회적력량은 첫째, 선비, 갓난이와 같은 로동계급이라는 것을 밝히었다. 이와 함께 주인공들이 계급적으로 각성하여 과업투쟁에 나서는 과정을 진실하게 해명함으로써 착취와 빈궁,

유모아

놀라운 대답

남편은 책에 정신을 팔고있었고 안해는 옆에서 텔레비전을 보고있었다. 텔레비전에서 한쌍의 연인이 나타났는데 남자가 녀인에게 《사랑하는 그대여, 나는 언제나 당신을 내 몸의 한부분으로 생각하오.》라고 말했다.

안해가 이 말에 매우 감동되어 《여보, 당신은 나를 당신 몸의 어느 부분으로 생각해요?》라고 물었다.

안해가 남편한테 자꾸 물어보자 남편은 시끄러운 나머지 큰소리로 대답했다.

《맹장!》

무권리로 가득찬 낡은 사회를 반대하여 투쟁하지 않고서는 결코 자유와 행복을 누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주었다.

강경애는 또한 중편소설 《소금》에서 것처럼 엄혹한 일제의 폭압속에서도 매우 무자각했던 한 녀인이 계급적으로 눈뜨기 시작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두만강연안에서 양양되고있던 항일무장투쟁의 일단을 단편적으로나마 묘사하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작품들에는 착취받고 억압받던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을 낡은 사회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엎기 위한 조직적이며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 형상화하지 못한 제한성이 있다.

강경애는 그후에도 《지하촌》, 《어둠》, 《마약》 등 단편소설들을 썼는데 이러한 작품들에는 자연주의적요소가 심하게 나타나고있다. 그것은 이 시기 사회생활로부터 유리되었던 그의 사상적제한성과 함께 일제의 파썸적탄압이 강화된 사정과도 관련되어있다.

자기의 생활체험을 기초로 하여 당시 사회의 모순과 착취계급을 반대하는 인민들의 투쟁을 진실하게 반영한 진보적녀류작가였던 강경애는 1944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 * *

10. 4선언과 우리 민족끼리

올해에 기어이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의 새 국면을 열어나가려는 열의가 지금 조국땅에 차넘치고있다.

조국의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을 기어이 이룩하려는 민족의 념원은 7년전 10월의 그날과 더불어 더욱 굳건해졌다.

주체96(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는 두번째로 되는 평양수뇌상봉이 이룩되고 북과 남사이에 6. 15북남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선언》이 채택되었다.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변영을 위한 10. 4선언의 발표는 민족의 자주와 평화, 통일과 공동번영으로 힘차게 전진하는 6. 15통일시대를 보다 높은 단계으로 올려세운 또 하나의 민족사적사변이었다.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이 마련됨으로써 북과 남, 해외의 온 겨레는 조국통일의 근본원칙과 함께 구체적인 설계도와 실천방도들을 가지고 자주통일을 향해 더욱 활력있게 전진해나갈수 있게 되었다.

북남관계개선과 통일위업실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이 다 밝혀져있는 10. 4선언의 채택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높이 자주통일운동의 새 력사를 펼쳐놓았다.

선언은 발표되자마자 온 겨레의 심금을 완전히 울려잡았으며 민족성원들모두를 조국통일위업실현으로 힘있게 고무추동하였다.

10. 4선언의 채택과 리행으로 북남관계는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민족의 통일과 평화변영을 지향해나가는 관계로 보다 확고히 전환되고 북남사이의 대화와 협력은 당국과 민간, 계층과 지역을 초월한 모든 부문과 령역으로 확대되었다.

력사적인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은 불신과 대결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고 통일과 평화변영의 새시대를 열어놓았다.

그러나 최근 몇해동안 6. 15북남공동선언과 10. 4선언에 따라 즐기차게 전진하던 겨레의 통일운동은 엄중한 장애에 부닥치고있다.

지난 몇년간 불신과 대결의 악순환이 지속되어온 북남관계는 공동선언들을 고수하고 철저히 리행해나가는 길에 민족의 미래가 있고 조국통일과 평화실현의 지름길이 있다는 진리를 다시금 확인시켜주고있다.

통일과 민족변영은 온 겨레의 강렬한 지향이고 요구이다.

북남관계의 원칙도 신뢰의 출발점도 겨레의 지향과 요구가 함축되어있는 북남공동선언들을 존중하고 철저히 리행하는데 있으며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통일과 평화변영의 미래를 열어가는것도 북남공동선언들의 기본정신을 지켜나가는데 있다.

상대방의 체제와 제도를 부정하고 대화를 정치적목적에 리용하는것은 더 이상 용납될수 없다.

북남사이에 반목과 불신, 대결을 고취하는 비방중상과 적대행위를 반대하며 북남공동선언리행을 위한 민간단체들사이의 교류와 협력, 합법적활동을 가로막는 행위들을 단호히 배격해나가는것이 중요하다.

6. 15공동선언과 10. 4선언을 존중하고 리행하면 화해와 단합을 이룩하고 북남관계도 개선해나갈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대결과 전쟁밖에 초래될것이 없다.

온 민족은 련대련합을 강화하고 조국통일운동을 거족적으로 벌려나가며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를 뛰어넘어 우리 민족끼리 굳게 단결하여야 한다.

자주적운명개척을 위한 민족의 투쟁의 앞길은 순탄하지 않지만 그 어떤 힘으로도 자주통일과 평화변영으로 향한 거세찬 민족사적흐름을 가로막을수 없다.

시련이 앞을 가로막고 난관이 적지 않아도 6. 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 4선언, 통일의 앞길을 밝혀주는 우리 민족끼리가 있어 겨레가 일일추추로 바라는 조국통일의 새 아침은 반드시 오고야말것이다.

윤홍기

《위협》라령, 도적이 매를 든다

조선속담에 《도적이 매를 든다》는 말이 있다.

속담그르데 없다고 바로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한 터무니없는 《도발》과 《위협》라령으로 피대를 뜯구며 침략적인 저들의 시꺼먼 속심을 가리우고있다.

올해 남조선을 행각한 미국무성 부장관은 《북의 도전》이니, 남조선과 《북핵문제에서의 공조실현》이니 하고 떠들었는가 하면 그뒤를 이어 남조선에 날아든 미국무성 동아시아태평양문제담당 차관보와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도 같은 소리를 하였다. 한편 미래평양함대사령관과 미래평양군사령관도 역시 《북의 예측 불가능한 행동》이니, 《핵위협》이니 뭐니 하는 입뻐뜯어진 소리를 하였다.

공화국에 대한 이러한 망발들은 그것이 크던 작던 어느것이나 북과 남사이에 대결을 고취시켜 북남관계개선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이다.

사실 따지고보면 미국이 떠들어대는 《핵위협》이나 《도발》은 공화국이 미국에 대고 할 말이다.

남조선에서 방대한 침략무력을 동원하여 북침전쟁연습을 그칠 사이없이 벌리고있는 미국이 공화국에서의 자위적인 로케트발사훈련에 큰일이나 난것처럼 법석 떠들면서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동원하여 《규탄》하는 억지공사를 벌려놓은것은 그것을 립증하는 단적실례이다.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신성한 제 나라, 제 강토를 수호하려

는 정당방위는 《도발》과 《위협》으로 되고 머나먼 남의 나라 땅에 밀려들어와 전쟁란동을 부리는 날강도적행위는 마치 의로운것처럼 우겨대는 미국의 흑백전도의 기질은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새 세기에 들어와 미국은 우리 공화국을 공개적으로 핵선제공격대상자명단에 올려놓고 핵위협을 더한층 강화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공화국으로 하여금 부득불 전쟁을 방지하고자 제도, 자기 운명을 지키기 위해 핵무기를 만들지 않을 수 없게 떠밀었다. 이에 대하여 미국인들자체가 인정하고있다. 미국의 국제정치문제연구소기관지 《포린 폴리시 포커스》는 《부쉬는 집권 초기부터 북조선을 군사외교적으로 매우 거칠게 대해옴으로써 결국 북조선을 핵보유국으로 만들어놓았다.》라고 폭로하였다.

미국이 엄연한 사실을 외면한채 《도발행위자제》니, 그무슨 《의무리행》이니 뭐니 하는 목적은 다른데 있지 않다. 그것은 바로 공화국을 계속 자극하여 군사적대응조치를 유도함으로써 《호전분자》감투를 씌우고 저들의 군사적책동을 합리화하려는데 있다.

또 다른 한가지, 최근 비밀해제된 미국방부 비밀보고서에는 미국이 지난 1968년 공화국령해에 침입하여 정탐활동을 벌리던 《푸에블로》호가 공화국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나포된 후 핵공격으로 대응하는 비상계획을 구체적으로 검토했다는것이 밝혀졌다.

《프리덤 드롭》이라는 작전계획에서 미국은 TNT 7만t위력의 핵탄두를 리용해 공화국을 공격하려고 하였으나 미국국내에서 웰남전쟁반대어론에 몰리우던 미행정부가 모든 군사적대응방식을 포기하는바람에 실현하지 못했다는것이 이번 비밀보고서를 통해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이 지난 조선전쟁시기(1950년 6월 25일-1953년 7월 27일) 수세에 몰린 전쟁국면을 돌려세우기 위해 원자탄사용을 계획했다는것도, 전후 공화국에 대한 핵공격을 기정사실화하고 지난 세기 50년대말에 남조선에 핵무기를 끌어들이는것도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부인도 시인도 하지 않는다.》는 핵정책밑에 남조선에 1 720여개의 핵무기를 비밀리에 반입하여 도처에 비축하여놓은 사실에 대해서도 미국은 변명할 말이 없을것이다.

전조선반도에 대한 지배권확립을 통해 세계를 제패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어제도 오늘도 변하지 않았다.

《년례적》이니, 《방어적》이니 하는 허울좋은 간판밑에 올해에도 끝끝내 조선반도에서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비롯한 여러차례의 북침핵전쟁연습들을 광란적으로 벌려놓은 미국이 그 누구의 《핵위협》이니, 《도발》이니 하는것으로 저들의 북침핵전쟁도발책동을 미화하고 합리화하는것은 말그대로 도적이 매를 든 격이다.

본사기자 러 해

고
화

《만월대계회도》

김홍도(1745년-?)작 《만월대계회도》는 칠순이 넘은 로인들이 자손들의 도움으로 송악산기슭의 만월대터에 모여 들잔치를 벌린 광경을 그린것이다.

커다란 장막을 치고 그안에 앉아 권커니작커니 하는데 마당에서는 춤판이 벌어져 모임의 흥을 더한층 돋구어주고있다.

잔치는 옛 고려왕궁이었던 만월대의 정전인 회경전터우에서 벌어지고있으며 그뒤로는 송악산의 서컹봉우리들이 보인다. 이날의 주인공은 칠순이 넘은 로인들이 64명이였지만 그앞에서서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림에 등장한 인물은 200명이 훨씬 넘는다. 그들모두의 각이한 자세와 동작이 자세히 그려져있다.

김홍도는 이 그림외에도 《련광정연회도》, 《평양감사환영도》, 《부벽루연회도》 등 일종의 력사기록화들을 여러편 남기였다.

* * *





칠보산의 농부바위 본사기자 김진호

울창한 수림으로 뒤덮인 산밭들과 좁고 깊은 계곡들, 기묘한 바위들과 크고 작은 폭포와 담소들로 하여 풍치가 아름답기로 소문난 칠보산이다. 류다르게 큰 농립모를 쓴 세명의 농부가 렬을 지어 산릉선을 타고 내려오다가 칠보산의 경치에 반하여 굳어졌다는 농부바위는 내칠보에서도 이름난 명소들중의 하나이다.

ISSN 1727-9062



9 771727 906005 >